

14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684.37	806.79		
(-225.54)	(-13.85)		
↑ 금리	↓ 환율		
4.025	1345.50		
(+0.011)	(-0.40)		



주식거래 밤 8시까지 ‘애프터마켓’ 개장 한국거래소(KRX) ‘애프터마켓’ 개장 첫날인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관계자가 애프터마켓의 각 단일종목별 실시간 시황을 확인하고 있다. KRX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되며 정규장과 동일하게 실시간 주문 방식으로 대부분 상장 주식 종목을 거래할 수 있다. /뉴시스

등록임대 폐지, 월세 전환 부추겨 세입자 주거비 부담 점점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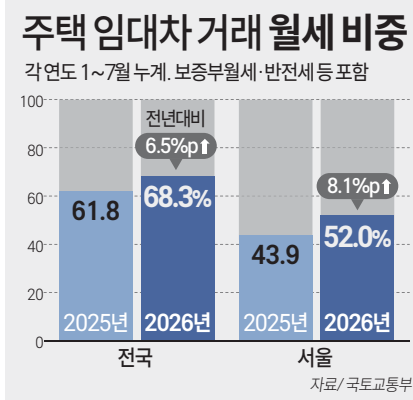
등록임대 세제혜택 단계적 축소
임대차 시장 전세 줄고 월세 늘어
“등록임대, 장기간 안정적 주택 공급
민간 공급자의 역할 고려해야”

- #. “갈수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줄어들 등록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전세로 내놓았던 주택을 이미 월세로 전환했다.”(서울 광진구 임대인 A씨)
- #. “최근 집주인의 임대주택 등록 말소 통지를 받았다. 당장 계약 조건이 바뀌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던 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향후 주거비가 오를 수 있겠다는 걱정이 생겼다.”(서울 은평구 거주 임대인 B씨)

전·월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던 제도가 축소되면서 집주인의 매도나 월세 전환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임차인 보호와 함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임대료 제한 대신 세제 혜택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은 조정대상지역의 등록 말소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특례는 2027년 말까지 유지하고 2028년 축소된 뒤 2029년 폐



지하는 방향이다. 주택을 팔 때 세 부담을 낮춰주던 혜택에 시한을 두는 셈이다.

등록임대는 집주인이 일정 기간 임대와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되며, 등록 유지 기간에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적용된다. 일반 임대차보다 임대료 급등을 장기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아파트 매입임대 신규 등록이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도 의무기간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자동 말소된다. 등록이 말소된다고 곧바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계약 중인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는 유지된다. 다만 이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등록임대에 적용되던 증액 제한에서 벗어나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정할 여지가 커진다.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줄고 월세 비중이 커졌다. 14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8.3%로 전년 동기보다 6.5%포인트(p)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도 지난해 43.9%에서 올해 52%로 높아져 월세가 임대차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 세제 시한과 갱신계약 충돌

정기권에선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이연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연 토론회에서는 세제특례 적용 시한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기간이 맞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가 2년 더 이어져 집주인이 혜택 적용기한 안에 처분하기 어렵다는 것.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매매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자의 입주 일정 등에 따라 거래가 제약될 수 있다.

김덕려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의무기간을 이행하는 도중 제도가 반복적으로 바뀌면 사업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과규정과 자동말소 규정 정비를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등록임대주택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 왔다”며 “민간 임대 공급자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도 상황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무임대 종료와 계약갱신 시점이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 유예제도를 언급하며 시장 영향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AX가 여는 혁신의 물류·모빌리티

물류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AX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AI는 물류와 모빌리티의 생산성, 효율성, 운영방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탄소중립 규제는 물류·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AX는 비용, 효율, 탄소중립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등 여러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라는 허들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AI→빅데이터→이동의 최적화→에너지 절감→탄소감축→지속가능한 미래 물류·모빌리티 완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기 위해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라는 주제로 11번째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 ◆ 행사명 :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 주제 :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
- ◆ 일시 : 2026년 9월16일(수) 14~17시(내빈 티타임 13시30분~14시)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최 :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 ◆ 등록 :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문의 :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metro

삼성D 최신 OLED 기술 中 스마트폰에 첫 적용

中 iQOO, 삼성D 한국본사서
디스플레이 기술 설명회 열어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신 화면 기술이 갤럭시보다 중국 스마트폰에 먼저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폰용 화면을 중국 아이쿠(iQOO)에 공급한다. 중국 업체들이 프리미엄폰의 화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최신 기술을 적극 채택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와의 협력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14일 iQOO 공식 웨이보에 따르면 아이쿠는 이날 삼성디스플레이 한국 본사에서 디스플레이 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삼성디스플레이 본사에서 스마트폰 업체가 관련 행사를 연 것은 처음이다. 양사는 이날 출시되는 ‘iQOO 16’의 화면 기술을 공개하고 ‘미래 디스플레이 탐색 계획’도 발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iQOO 16에 세계 최초로 2K 해상도와 165헤르츠(Hz) 주사율을 동시에 구현한 6.9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공급한다. 선명한 화질을 유지하면서 초당 화면을 165번 바꿔 빠른 움직임도 부드럽게 표현한다.

iQOO 16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신 OLED 소재인 ‘M16’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보기술(IT) 매체 IT즈자와 콰이커지는 이날 행사에서 M16과 빛 손실을 줄이는 ‘LEAD 2.0’ 기술이 적용됐다고 전했다.

M16은 OLED에서 빛을 내는 여러 소재를 묶은 최신 재료 세트다. 소재 조합에 따라 밝기와 색 표현, 수명, 전력 소모가 달라져 OLED 성능을 좌우한다.

이번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신 기술이 갤럭시보다 중국 스마트폰에 먼저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달 출시되는 iQOO 16에는 M16이 들어가는 반면, 갤럭시는 제품 출시 일정과 라인업 전략에 맞춰 내년 S27 프로와 울트라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업체들이 최신 OLED 기술을 빠르게 채택하면서 프리미엄폰의 디스플레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M16은 삼성전자에 앞서 다른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에도 공급되고 있다. 애플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와 구글 픽셀11에도 M16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최신 OLED 기술을 갤럭시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사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넓히는 모습이다.

iQOO에 공급하는 OLED는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하면서 전력 소모도 줄였다.

한편 중국 패널업체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는 iQOO 등 현지 스마트폰 업체를 프리미엄 OLED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최신 기술을 앞세워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국힘, 용혜인 사퇴에 “꿈수 비레가 문제”…준연 동형 비례제 폐지 추진
- ▲정부 “후티 반군의 사우디 민간인 공격 규탄…즉각 중단 촉구”



- ▲국힘 윤리위, 권영진·서범수 재심 논의…결과는 아직
- ▲여야 김성수 청문회 공방…“조희대 국민 불신”
- ▲李, 사법부 독립 침해”

(사진 뉴시스)

- ▲국힘 재경위원들 “이형일 청문회, 증인·참고인 한 명도 없어…국민 무시”
- ▲與 ‘AI 격차해소 민생안전추진위’ 신설…위원장 김민석

주요기업 명절 앞두고 상생 강화 삼성·현대차·LG, 4조 이상 푼다

삼성그룹 임직원 온라인 장터 운영
현대차그룹 2.2조 납품대금 조기지급
LG그룹 직접 대출 등 금융 지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지역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는 등 상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원자재 대금과 임직원 상여금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덜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요 그룹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2조2562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지원하고, 삼성그룹 1조3000억원, LG그룹 6000억원이 뒤를 잇는다. 세 그룹이 조기 지급하는 금액만 4조1562억원에 달한다.

LG그룹은 LG전자·LG이노텍·LG화학·LG에너지솔루션·LG생활건강·LG유플러스·LG CNS·D&O 등 8개 계열사가 협력사 납품대금 약 6000억원을 최대 13일 앞당겨 지급한다. LG는 조기 지급과 함께 LG전자 등 7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와 직접대출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3차 협력사로 상생 범위를 확대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LG그룹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펀드의 10% 이상을 2차 이하 협력사에 지원하는 한편 상생 결제 낙수율도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은 13개 관계사가 1조3000억원 규모의 물품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약 7일 앞당겨 지급한다. 지난해 추석보다 지원 규모가 약 1100억원 늘었다. 삼성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도 운영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기아 등 주요 계열사가 6000여개 협력사에 2조2562억원의 납품대금을 최대 23일 조기 지급한다. 지난해 추석 2조228억원, 올해 설 2조768억원보다 확대된 규모다. 1차 협력사에도 2·3차 협력사에 대한 조기 지급을 권고해 상생 효과가 협력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기업들은 취약계층 지원과 전통시장·지역 농가 돕기에도 나선다.

LG그룹 계열사들은 생활용품 전달과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삼성 임직원들은 매년 설과 추석을 합쳐 명절 기간 약 30억원의 물품을 온라인 장터에서 구입하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전통시장 장보기와 지역 농산물 구매, 복지시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명절 상생 활동이 협력사의 단기 자금 부담 완화를 넘어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으로 운기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기아, 'PV7' 공개... 미래 모빌리티 사업 속도

'PV7 카고 롱·패시저 롱' 우선 선배
송호성 사장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

기아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대형 전동화 PBV(Platform Beyond Vehicle) 'PV7'을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출시한 중형 PBV 'PV5'에 이어 대형 모델을 추가해 물류·배송부터 승객 운송까지 전동화 상용차 시장에서 고객 고객 선택지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기아는 14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에서 PV7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PV7은 기아의 두 번째 전용 전동화 PBV로 ▲사용 목적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 가능한 공간 ▲동급 최고 수준의 전동화 상품성 ▲차량용 첨단 소프트웨어 ▲플랫폼 운영 솔루션을 결합한 대형 전동화 PBV 모델이다.

PV7은 PBV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넓고 평평한 실내 및 적재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용량 배터리를, 고효율 전기 구동 시스템, 800V 충전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유럽 WLTp 기준 최고 46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와 배터리 충전 상태(SoC) 10%에서 80%까지 20분대 중반의 초급속 충전 성능을 구현한다.

기아는 전장 5.3m급 제원의 'PV7 카고 롱'과 'PV7 패시저 롱'을 우선 선보이며, 차세대 바디 개발·제조 기술인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을 기반으로 축간거리와 전장·전고 등 제원과 실내 구성을 차별화한 다양한 모델을 유연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PV7은 실용성을 앞세운 공간 설계를 강점으로 하고 있다. 전장 5.35m, 전폭 1.995m, 전고 1.99m, 축거 3.5m의 차체를 바탕으로 카고와 패시저 모델을 운영한다. 카고 롱 모델의 적재 용량은



(위) '더 기아 PV7' 카고 외장, (아래) '더 기아 PV7' 패시저 실내.

/기아

6.1m³로 유로 팔레트 3개를 실을 수 있으며, 낮은 550mm 적재고를 적용해 화물 상하차 편의성을 높였다. 패시저는 7·9·11인승으로 구성해 다양한 운송 수요에 대응한다.

또 기아는 차량 자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까지 결합해 PBV를 '업무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 생성형 AI 에이전트 '글레오 AI', 플릿 관리 시스템 '플레오스 플릿' 등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업무 효율과 차량 운용 경쟁력을 높였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PV7은 개인화된 모빌리티를 향한 여정의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기아는 고객의 다양한 비즈니스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차량, 동급 최고의 전기차 성능 및 PBV 전용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의 생산성과 유연성, 장기적인 보유 가치를 모두 높이는 종합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친환경 선박·FLNG 등 미래기술 '한자리'

조선 3사, 가스택 참가

HD현대, 계열사 5곳 공동 참가
차세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전시
삼성중공업, LNG 밸류체인 기술 전면에
한화오션, 60MW급 FDC 모델 공개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가스택에서 각자의 차세대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친환경 선박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해상데이터센터 등 미래 사업과 기술을 선보인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은 이날부터 1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에너지 전시회 중 하나인 가스택(Gastech) 2026'에 참가한다.

HD현대는 선박의 탈탄소와 운항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조선·에너지 계열사 5곳이 공동 참가해 차세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제거 설비(FSRU),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을 전시한다. 전시 기간 기술 인증과 업무협약(MOU) 등 30건의 공식 행사도 진행한다.

풍력보조추진장치를 적용한 미래형 LNG운반선은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설계 적합성을 인정받는다. 3만5000㎥급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과 18만5000㎥급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시스템 등은 기본 인증을 받는다.

디지털 운항 기술도 내놓는다. LNG운반선의 기관 운항을 최적화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 인증을 받고, 미국선급(A



'윙세일(Wing Sail)'을 설치한 HMM의 5만톤급 중형 유조선(MR탱커) '오리엔탈 아쿠아마린(Oriental Aquamarine)'호.

/HMM

BS)·지멘스와 암모니아 추진선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화물창을 기존 4개에서 3개로 줄인 17만7000㎥급 LNG운반선 기술도 소개한다.

삼성중공업은 FLNG를 중심으로 LNG 밸류체인 기술과 사업화를 전면에 내세운다. 독자 개발한 천연가스 액화시스템 'SENSE'를 FLNG 상부 설비에 적용한 개념설계에 대해 ABS와 LR의 기본 인증(AiP)을 받는다. ABS의 기본설계 검증(BDR)도 획득한다.

SENSE의 사업화도 추진한다. 가스엔텍과 첫 라이선싱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풀크럼 LNG와 글로벌 5개 지역의 FLNG 시장을 공략한다. 미국 제라아메리카스와는 하와이 연안 FSRU 사업의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가스운반선 기술 인증도 받는다. 한국

선급(KR)으로부터 대형 C타입 독립형 탱크의 구조 건전성 평가를 받고, 노르웨이 선급(DNV)에서는 초대형 가스·암모니아 운반선 저장탱크용 복합 지지구조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다.

한화오션은 조선·해양 기술을 데이터센터로 확장한다. 자체 개발한 60MW급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실물 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처음 공개한다.

모듈화 설계를 적용해 설치 환경과 고객 요구에 따라 발전·전력 공급 방식과 서버 유형, 용량 등을 구성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자체 조선·해양 기술에 한화그룹의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운영·유지보수(O&M), 보안 역량을 결합해 FDC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에는 ABS로부터 60MW급 FDC 개념설계에 대한 기본인증도 획득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metro

정부-ADB, 개도국 AI 도입 등 협력 확대

구윤철 부총리, 칸다 ADB 총재 면담
에너지 인프라 사업방안 등 제시

한국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인공지능(AI) 도입에 힘을 보탠다. 양측은 개도국 AI 전환 수요에 한국의 기술 및 경험을 연계하는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ADB는 한국에 'AI 혁신개발센터'(CAID)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칸다 마사토 ADB 총재와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ADB에 AI 혁신개발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센터 설치를 계기로, 개도국의 AI 전환 수요에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연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한국이 대내외에 내건 이른바 '글로벌 AI 허브 이니셔티브(주도권)'에서도 ADB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칸다 총재도 국내 설립이 예정된 AI 혁신개발센터를 통해 양측 간 AI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화답했다.

앞서 지난 5월 구 부총리와 칸다 총리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

행총재회의를 계기로 마주한 바 있다. 당시 구 부총리는 AI 부문에서 ADB와 협력하면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윈윈(win-win) 개발'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또 국제연합(UN) 및 다자개발은행들의 AI 사무소를 한국에 집적화하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 계획을 소개했고, CAID의 국내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ADB와 체결했던 것.

이번 서울 면담에서 구 부총리는 AI 전환 뒷받침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ADB가 추진 중인 아시아 역내 에너지 사업에 한국의 발전·송배전 기술 및 운영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중앙아시아 국가 대상의 지원방안 관련해, 이번 한-중앙아시아 및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내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ADB 간 협력이 보다 공고히 유지될 것이라며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중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핵심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산업 발전과 국내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늘려 나가자고 제안했다. 칸다 총재는 주요 사업에 대한 협조용자 등을 통해 한-중앙아 협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쿠폰 다 쓰면 이용자 떠났다… 공공배달앱 지원 ‘딜레마’

중기벤처부, 내년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지원 1240억 편성
그중 1200억 ‘할인쿠폰’ 배정
플랫폼 경쟁력 강화엔 40억 뿐
지속적 이용자 확보 방안 ‘절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양분하고 있는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배달앱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으로 124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국 공공배달앱 가운데 3~4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 예산의 약 97%인 1200억원이 소비자 할인쿠폰에 배정돼 있어 단기적인 이용자 유입을 넘어 플랫폼 자체 경쟁력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메트로경제 뉴스〉 취재에 따르면 중기부는 공공배달앱 지원을 통해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약 93%에 달한다. 소상공인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들은 정률제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을 합하면 주문 금액의 30~40%가량을 플랫폼 관련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가운데 시장성과 공공성 등을 평가해 3~4곳을 선정하고 점유율을 15~20%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현재 공공배달앱은 지자체 직접 개발형 7개(배달특급·배달도아·전주맛배달·배달의명수·배달e음·울산·페달·배달양산)과 민간 협력형 5개(행겨

요·먹깨비·위메프·오피스·위파람·대구로) 등 총 12개가 운영되고 있다. 민간 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7.8~9.7% 수준인 것과 비교해 공공배달앱은 2% 안팎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쟁점은 예산의 대부분이 소비자 할인쿠폰에 배정됐다는 점이다.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원 가운데 1200억원이 할인쿠폰에 투입된다. 가맹점 확대와 서비스 개선 등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나머지 예산은 40억원으로 전체

의 3.2% 수준이다.

할인쿠폰을 통한 이용자 확보는 앞선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에서도 효과와 한계가 함께 나타났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 650억원을 투입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기간 공공배달앱 시장점유율은 10%를 넘어섰고 주문도 증가했다.

그러나 쿠폰 예산이 소진된 이후 이용자 수가 다시 감소했다. 대표적인 공공배달앱인 행겨요와 먹깨비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최근 수개월 동안 20~30% 이상 줄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실증 분석에서도 소비쿠폰 발급 이후 실제 매출과 수익 증가를 체감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27%에 그쳤다.

주무부처에서도 할인쿠폰 중심 지원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배달료 쿠폰만 지원한다고 공공배달앱을 쓰지 않던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아 이용하기는 어렵다”며 “같은 재정을 투입해도 10배, 20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효율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학계, 업계에서는 공공배달앱의 지속적인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가맹점과 배달 인프라, 결제 수단 등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비자가 실제 주문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와 밀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꼽는다.

배달 서비스 경쟁력 확보도 과제다. 단건 배달과 실시간 배달 동선 최적화 등 민간 플랫폼이 제공하는 수준의 배달 서비스를 구축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등을 연계해 결제 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맹점이 기존 플랫폼에서 축적한 리뷰와 평판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공공배달앱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인태연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은 영업 부담을 덜고 소비자는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며 배달기사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간편식, 합리적 대체재로… 명절 음식에 ‘효율’ 없다

인구구조·고물가와 추석 밥상
대형마트 차례상 비용 40만원 육박
기회비용 따져보면 ‘간편식’ 경제적
GS샵 2015년·2025년 추석 매출
주도권 조리도구·완제품식품 이동

가족이 모여 온종일 전을 부치고 음식을 나누던 전통적인 명절 풍경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급증과 핵가족화 등 인구구조적 변화에 물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명절 음식도 직접 장시간 준비하기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부담은 여전히 차례상 장보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 국물가정보 조사 결과 올해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 2500원, 대형마트 39만 77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 1.6% 올랐다.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악재로 애호박, 무 등 주요 채소류와 일부 축수산물 가격이 들쭉인 여파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성수품 수요가 쏠리는 점을 감안하면



챗GPT로 생성한 과거와 현재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는 모습.

가게가 느끼는 실제 체감 물가 부담은 훨씬 크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로 하여금 식재료를 개별 구매해 직접 조리하는 방식의 기회비용을 따져보게 만들었다. 재료 구매비에 가사 노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더하면 간편식을 구매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손이 많이 가 명절 노동의 대표격으로 불리는 메뉴일수록 간편식 전환

속도가 빠르다. 면·소스 전문기업 면사랑의 냉동면키트 ‘전통한식잡채’는 명절 직전 달마다 판매량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올해 설 직전 1월 판매량은 전월 대비 145%, 지난해 추석 직전 9월에는 무려 290% 증가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명절 음식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물리적 피로도를 비용으로 환산하는 소비자가 늘었다”며 “재료 준비의 번거로움을 덜고 규격화된 맛

을 보장하는 간편식은 이제 차선택이 아닌 합리적인 대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명절 소비 패턴의 구조적 변화는 유통 채널 데이터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GS샵이 2015년과 2025년 추석 연휴 직전 3주간의 매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명절 상품의 주도권이 조리도구에서 완제품 식품으로 완전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명절 필수품으로 꼽히며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했던 냄비·프라이팬 등 주방용품 매출 비중은 3.3%로 토막 났으며, 매출액 역시 38% 감소했다. 반면 동기간 식품 매출 비중은 9.3%에서 17.9%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매출액은 80% 성장했다. 명절을 위해 주방용품을 새로 장만하던 ‘조리 중심 소비’가 완제품을 구매해 바로 차려내는 ‘구입 중심 소비’로 재편된 셈이다. 아울러 건강 관련 상품 매출 비중도 7.0%에서 15.3%로 크게 뛴 점은 주목할 만하다. 명절 소비의 중심축이 가족 공동체용 음식 장만에서 개인의 건강과 실용성으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

이같은 흐름은 명절 선물 시장의 지형도까지 바뀌었다. 상온에서 장기 보관이 가능해 무난함을 무기로 시장을 지배했던 스펀, 참치캔, 식용유 등 전통 가공식품 선물세트의 자리에 즉시 한 끼 식사로 활용 가능한 HMR 제품군이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제너시스BBQ는 올해 추석 선물세트에 인기 치킨 HMR 및 바베큐, 닭곰탕 등을 채워 넣은 실용 세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BBQ의 상반기 HMR 유통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3% 증가하는 등 시장 수요를 확인한 결과다. 하림 역시 부대찌개, 닭볶음탕, 곰도리탕 등 외식 대표 메뉴를 담은 ‘냄비요리 세트’와 중화 닭요리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명절 선물 스펙트럼을 넓혔다.

편의점업계 또한 전통 메뉴의 형태 변용을 추진 중이다. 세븐일레븐은 떡갈비와 고기산적을 각각 감파와 무스비 형태로 변형한 간편식을 출시하며 1인 가구 및 명절 혼밥족을 겨냥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전통의 식품 대기업들 역시 캔햄 중심의 대량 선물세트를 유지하는 동시에 간편식 및 프리미엄 라인업을 보강하며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

‘K-유산균’ 지방간·알츠하이머 등 고령사회 질환 공략

셀바이오텍, 2개 특허 유산균 복합
간 내 지방축적 억제, 지방간 개선
엔비피헬스케어 ‘마이크로바이옴’
알츠하이머 환자 인지기능 개선 확인

국내 유산균 산업이 지방간, 알츠하이머,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고령화 사회의 핵심 질환을 겨냥한다. 항노화 및 생균치료제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다. 특히 신체 전반의 대사 환경을 개선하고 노화 관련 난치성 질환을 예방·치료하는 등 ‘K유산균’ 기반 헬시에이

징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독자 유산균 균주에서 규명한 작용 기전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셀바이오텍은 지방간 및 대사 질환을 공략하고 있다. 특허 유산균인 ‘CBT-BR3’와 ‘CBT-LP3’를 복합해 간 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간을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 모델 실험 결과, CBT 유산균 투여군은 대조군 대비 체중은 10.8%, 체지방은 16.4%, 복부지방은 41.7% 줄었다. 지방간 무게도 41.1% 감소했다. 또 간

조직 분석에서 간세포 내 축적된 지방 방울 수는 63.3% 줄었다.

이와 함께 지방 생성 관련 유전자 발현은 평균 59.7% 낮아졌다. 간 기능 지표인 AST, ALT 수치 등에서도 종합적으로 대사 환경이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마이크로바이옴 앤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게재됐다.

셀바이오텍은 CBT 유산균을 기존 대표 제품인 ‘듀오락’에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비만과 지방간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셀바이오텍 관계자는 “지방간은 방치할 경우 간 건강 악화뿐 아니라 비만, 당뇨 등 다양한 대사질환과 연관되는 만큼 적극적인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엔비피헬스케어의 경우,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연구를 통해 퇴행성 뇌 질환에도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체적용시험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NVP-2106’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ADAS-Cog13 값을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엔비피헬스케어는 생균치료제 파이프라인도 확보했다. 해당 후보물질 ‘NK4146’은 뇌와 장의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을 크게 낮추고, 기존 치매 치료제인 레카네맵과 병용 투여 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비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했다.

유산균 연구개발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의 시장 진입도 잇따르고 있다.

전통 제약사인 종근당그룹 역시 ‘락토팩’ 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군으로 입지를 다져온 데 이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개발로 연구개발 영역을 넓힌다.

MASH(대사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물질 ‘CKDB-308’,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 ‘CKDB-320’ 등 만성 난치성 질환을 정조준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실물경제에 330조 푼다... ‘기업 성장·민생’ 동시 사수



- ① 장민영 은행장.
- ②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열린 IBK창공 ‘실리콘밸리 4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킷오프 데이 행사를 마치고 (좌측 1열 다섯 번째부터)이건호 IBK기업은행 혁신금융그룹장, 안성우 500글로벌 총괄파트너와 참여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③ 지난 3일 수원특례시청에서 열린 ‘수원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 체결식에서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④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지난 7월 9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포용 및 생산적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⑤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전경.

/IBK기업은행



정부가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주문하면서 IBK기업은행도 자금의 물꼬를 기업과 혁신산업, 금융 취약계층으로 돌리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쏟았던 금융자금을 실물경제로 이동시키는 동시에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은행은 오는 2030년까지 총 300조원 규모의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금융 소외계층과 취약차주의 재기·회복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금융과 혁신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포석이다.

⑥ IBK기업은행



◆ 생산·포용금융 전담조직 신설

기업은행은 정부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춰 내부 조직과 업무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생산적·포용금융부’를 만들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첨단·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부터 금융 취약계층 지원, 개인채무조정을 통한 고객 재기 지원까지 생산적·포용적 금융 관련 기능을 한 조직에서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

투자 부문에서도 정책사업 전담 기능을 강화했다. 대출 중심의 자금 공급에서 벗어나 투자와 보증, 정책금융기관과의 공동사업 등을 연계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도 확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금융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기업은행이 이처럼 조직과 협업체계를 동시에 정비하는 것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일회성 금융지원이 아닌 중장기 경영전략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정책에 맞춰 금융공급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 배분과 심사, 리스크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 생산금융 300조·포용금융 30조

조직 정비와 함께 실제 자금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총 300조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중소·중견·벤처기업 등에 성장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는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지원에 나섰다. 소기업과 전통 제조업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최대 1.3%포인트(p) 낮추고 보증료를 지원해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한다.

정책금융기관 간 공동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과 각각 1500억원씩 총 4500억원을 공동 출자해 7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글로벌 스케일업 협력펀드’를 조성한다.

‘생산적·포용금융부’ 신설·총괄 일회성 아닌 중장기 전략으로

2030년 생산금융 300조 투입
첨단산업·중소 등에 자금 공급
해외진출·스케일업 지원 초점

산은·수출입은행과 공동출자
7000억 규모 협력펀드 조성
금융 취약층에 30조 이상 지원
금리 감면·채무조정 재기 확대

펀드는 대형펀드 1개와 중형펀드 2개 등 총 3개로 구성되며 중소·중견·벤처기업에 성장자금을 공급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단순한 대출 공급을 넘어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해 유망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포용금융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금융 소외계층과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3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등 기존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계층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착한금리 포용대출’이 대표적이다. 개인 신용평점 하위 50%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4.90%의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연 4.70%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출기간도 최장 10년까지 설정해 취약차주의 월 상환 부담을 낮췄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생 재기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연간 500개 이상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히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이 생산적·포용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은 정책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 과도 맞닿아 있다. 일반 시중은행보다 중소기업

금융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자금배분 구조 전환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 과정에서 건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혁신기업과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늘어날수록 신용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공급 확대와 함께 정교한 신용평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야 지속 가능한 금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핵심은 단순히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동산·가계 중심의 자금 배분 구조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은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동서식품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향기로운 커피와
여유를 즐기는 시간.

카누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KANU®



김승원 지키는 與 vs 낙마 버르는 野… 법무장관 청문회 전운

민주 “낙마 사유 아냐” 적극 옹호
국힘, 의혹 열거하며 지명철회 촉구
한동훈, 제넨셀 거론하며 수위 높여

국회가 이번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신약로비’ 등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옹호하며 하루 남은 인사청문회 정면돌파를 지원했다. 반면, 야당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낙마할 후보자는 김승원 후보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회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검증한다. 특히 정치권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인사청문 슈퍼위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며, ‘신약로비’ 등 김 후보자가 받는 의혹이 ‘낙마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강변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신약로비’ 사건 관련 수사 자료 등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찰이 의혹을 키우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약로비 의혹은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평소 친분이 있던 브로커 양모씨의 청탁을 받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제넨셀’의 임상 2·3상 승인을 위해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민원 문자를 넣었다는 의혹이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날 강원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이 꽃놀이패처럼 쥐고 흔드는 녹취록과 수사 기록은 검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최근 법

사위원들의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듯이 윤석열 정부 당시 김승원 후보자를 겨냥한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까지 확대됐는지 국민들은 다시 묻고 있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로 탈탈 털었지만 당시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만약 수사 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됐거나 수집된 것이라면 정치에 썩먹을 일이 아니라 본인이 수사받을 일”이라며 “한 의원은 검찰 버릇 못 버린 캐비닛 정치 그만하고 수사받을 각오부터 하라”고 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김 의원은 정치검찰이 2022년 ‘신약로비’ 의혹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간 연관성을 찾기 위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수사가 2022년 11월 대검에서 하명 수사로 서부지검에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검찰이 시작한 게 이재명 대장동과 김승원 의원의 관련성을 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철회해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석을 앞둔 국민에게 범죄 종합 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제라도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공공연하게 김생용사(金生龍死-김승원은 지키고 용해인은 낙마를 이야기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다음 차례는 김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위약로비 부정 청탁으로 주식투자자들의 피를 빨았고, 가족 조합을 만들어, 온 가족이 국민 혈세를 빼먹었다”며 “위장전입으로 아들딸은 좋은 학교로 보냈고, 음주운전 전과까지 꼼꼼하게 이력

서에 채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 취소”라며 “민심, 민생보다 이재명 면죄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를 할 것인가’라는 서면 질의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답했다”며 “이 정부 인사들은 참 말이 길다. 공소 취소할 것인가에 안 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이면 공소 취소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하위 동물 실험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제넨셀이 실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 93명에게 투여한 것을 두고 “식약처는 ‘쥐가 토하고 죽은 부작용을 고의로 삭제한 하위의 보고서’를 믿고 임상시험 승인을 내줬다”며 “하위 보고서라는 것을 알았다면, 제 정신인 식약처 직원이라면 절대로 승인을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식약처가 속아서 승인내주지 않았다면 93명의 시민이 독약을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李, 중앙아시아 5개국과 ‘릴레이 정상외교’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한국 기업 현지 진출 확대 추진
내일 제1차 한·중앙양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부터 사흘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모색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5개국 정상들과 차례로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청와대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신흥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총 13건의 정부부처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교환식이 진행된다.

15일에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진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 16일에는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 서울에서 한·중앙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저녁에는 각국 정상 및 내외빈을 초청한 공식 만찬이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서면브리핑에서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고 의미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07년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출범 이후 장관급에서 이어온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서울선언’을 통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다자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상회의 이후에는 참여국 정상 및 정부·기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비즈니스 서밋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 경제인 간 네트워크 구축과 분야별 실질 협력 심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핵심광물·에너지 자원과 우리의 탐사·가공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통관·규제·지재권 협력과 인프라·플랫폼 분야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공조로 58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아울러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자원·인프라 분야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디지털, 과학기술,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재난대응 등 첨단·친환경 분야로 확장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착 9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문화 교육과 청년·인재 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중앙아시아 현지 사회에 정착한 고려인의 역사적 기여를 재조명하고 양 지역 간 인적 교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공급망·미래산업·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이를 신북방정책 구현과 외교 다변화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野, 與 지지율 역전 “이재명 정부 실정, 대여투쟁 집중 영향”

국민의힘은 14일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최근 단행된 2차 개각의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당내 갈등보다 대여투쟁에 집중한 점도 지지율 역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지율 역전 배경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과 괴리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주식에 이어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 도덕성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어긋나는 형태들이 (이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그동안 분열 대신 강력한 대여투쟁에 집중했다는 게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며 “올림픽공원 사태 이후 공정과 상식에 민감한 2030MZ세대들의 마음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집중적으로 공략한 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포인트(p),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3.8%로 전주보다 3.6%p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3.3%로 3.8%p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 주보다 4.5%p 오른 42.1%, 민주당이 5.7%p 내린 36.1%로 나타났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6.0%p로 오차범위 안쪽이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경수 기자 gws0325@

대입 원서 접수 전산장애에 국회 공방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여야는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입 공정성과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 현안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도입과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확대를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전산장애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95.7%에 달하는 아이들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98.1%가 대책을 바라고 있고 92.2%는 자녀 보호 기능을 갖춘 대안 기기가 나오면 우선 쓰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와 논의한 결과, 기술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관하는 공론화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해 편의 기능을 늘리고 디지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중독을 최소화하는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다만 실제 개발과 도입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교육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전산장애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짚었다.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수시 원서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서버가 다운되면서 교육부는 접수를 못한 수험생 최대 1200명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시는 공정성이 가장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시험 문제 하나 잘못 출제되면 나라가 들쭉거린다. 근데 지금 전산장애로 원서 접수를 못 한 사람이 1200명이다”고 지적했다.

/박경수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퇴직연금 DB, DC, IRP 합산 적립금



금융권 전체 1위 (은행, 증권, 보험)

*2026년 1분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준

**“1등의 관리
한 번 받아보실래요?”**

우리국민의 **하나된 선택**
퇴직연금전문 신한은행

퇴직연금
고객센터 | **1577-4114**

※-(DC,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형IRP의 수수료는 후취 연 0% ~ 0.45% 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운용/자산관리 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6-01741호 (2026.04.15 ~ 2027.04.14).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6-11660-1호 (2026.04.15 ~ 2027.04.14)

자산관리 전문은행 **신한은행**

‘AI 열풍’ 中 수출길 넓혔다… 지난달 241억 달러, 119%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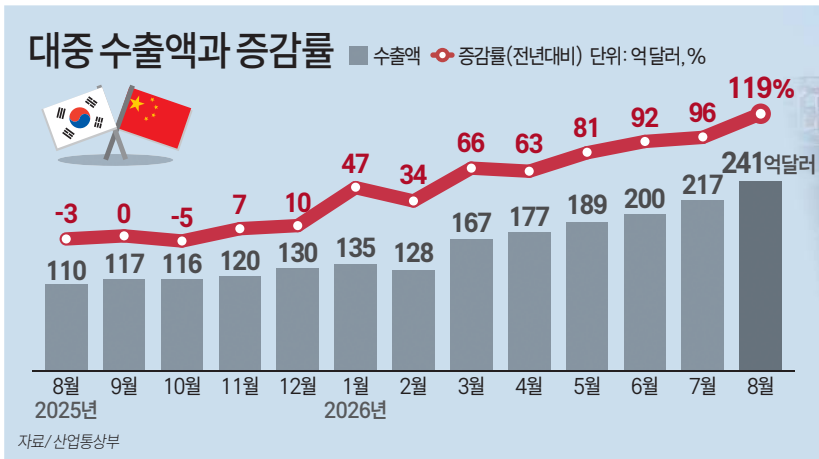
관세청, 이달 수출 증가율 103%
中 수출 3개월째 200억 달러 넘어
반도체 134억 달러 전년비 320% ↑
석유화학 5%, 디스플레이 14% 감소

지난달 전년 동월보다 119.3% 급증한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이달 초에도 두 배 넘게 늘었다. 공식 통계를 종합하면 중국 내수 회복보다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연결된 반도체 공급망이 대중 수출을 끌어 올린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0%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수출은 349억7300만달러로 82.6% 늘었다.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아 증가율에 조업일수 효과도 없었다.

◆ 석유화학·디스플레이 수출 감소

지난달 수출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대중 수출 회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8월 대중 수출은 241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19.3% 늘며 3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웃돌았다.

8월 1~25일 기준 대중 반도체 수출은 13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0% 증가했다. 일반기계 수출도 33% 늘었다. 반면 석유화학은 5%, 무선통신기기는 4%, 디스플레이는 14% 각각 감소했다. 전체 국기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8월 20% 증가했지만, 대중 수출 증가 폭은 반도체에서 두드러졌다.

반도체 수출액 증가에는 물량과 가격 효과가 함께 작용했다. DDR5 16기가비트

고정저래가격은 지난 4월 35달러에서 8월 46.5달러로, 128기가비트 낸드플래시는 같은 기간 24.2달러에서 30.5달러로 올랐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수출액을 동시에 밀어 올린 셈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중국경제팀의 ‘중국 반도체 수출 호조의 배경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의 반도체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99.3% 증가했다.

한은은 올 상반기 중국 반도체 수출 증

가분 가운데 상당 부분에 한국계 기업이 기여한 것으로 추정했다.

◆ 中 실물경제, 내수와 ‘온도 차’

중국 실물경제 지표도 수출·첨단 제조업과 내수 사이의 온도 차를 보여준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했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은 0.6%에 그쳤다.

올해 1~7월 고정자산투자는 6.7% 감소했고 부동산개발투자는 19.2% 급감했다. 민간투자도 9.4%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첨단기술 제조업 생산은 13.8%, 첨단산업

투자는 5.0% 증가했다. 수출 제조업과 첨단산업은 성장하는 반면 소비와 부동산·민간투자는 부진한 이중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8월 중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8%, 근원물가는 1.0% 올랐다. 하지만 식품 가격은 1.4%, 주거비는 0.3% 각각 하락했다. 물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가계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대중 수출 급증이 성장과 무역수지를 떠받치는 요인이다. 다만 수출 증가세가 중국 내수보다 글로벌 AI 투자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기대고 있는 만큼 변동성도 크다. AI 설비투자가 둔화하거나 메모리 가격이 조정되면 대중 수출 증가율도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할 경우 한중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부담으로 전환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은행 마통 잔액 69.7조… 전년대비 6조 ↑

마이너스 통장 계좌는 0.5% 증가
계좌당 평균대출 잔액 9% 급증

은행권 마이너스 통장 계좌 수가 올해 들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실제 대출 잔액은 6조원 넘게 늘었다. 일부 은행에서는 계좌가 줄었는데도 잔액이 늘어, 기존 차주들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 쓴 돈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국내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69조7283억원으로, 지난해 말(63조6409억원)보다 6조874억원(9.6%) 증가했다. 해당잔액은 은행이 설정한 대출 한도가 아니라 차주가 실제로 빌려 쓴 금액이 기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마이너스 통장 계좌 수

는 486만9319개에서 489만3636개로 2만4317개(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계좌 수 증가폭보다 대출 잔액 증가폭이 훨씬 컸던 셈이다. 계좌당 평균 대출 잔액도 1307만원에서 1425만원으로 118만원(9.0%) 늘었다.

증가액은 주요 은행에 집중됐다. KB국민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1조2277억원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신한은행 1조276억원, 하나은행 9974억원, 우리은행 8896억원, 카카오뱅크 8424억원 순이었다. 이들 5개 은행에서 늘어난 잔액만 약 4조9847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81.9%를 차지했다.

잔액 증가세는 특히 4월 이후 두드러졌다. 올해 2분기와 7월에 증가한 잔액은 총

5조7827억원으로, 연초 이후 전체 증가액의 95.0%에 달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2분기 들어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 등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했다.

차주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 수준도 과거보다 높아졌다. 은행별 대출 잔액을 반영한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연 3.94%에서 올해 7월 말 연 5.64%로 1.70%포인트 상승했다. 마이너스 통장 이용액이 늘어난 가운데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함께 커진 셈이다.

박 의원은 “계좌 수는 그대로인데 대출 잔액만 대폭 늘었다는 것은 가계의 급전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금융, 글로벌 리딩그룹 도약에 역점”

이재근 KB금융그룹 회장 후보자
“계열사 인사,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이재근 KB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자(사진)는 14일 “KB금융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리딩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국내 금융그룹의 1등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룹의 큰 성과 위에서 선임이 된 것은 1등으로서 안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무겁게 받고 있다”며 “경영의 연속성과 전략의 연속성, 비즈니스의 연속성은 훼손되지 않고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앞으로 3~5년간 그룹의 명운이 달려있는 시



기”라며 “그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안정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계열사 대표 인사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금융그룹이 클수록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이가 국한하지 않고 역량에 기반해서 전문성과 직원들과의 호흡, 조직원들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가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분양가 산정 기준 건축비 4.07% 오른다

국토부, 분상제 단지 분양가 오를듯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에 반영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 만에 4.07% 오른다.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당 62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강남권을 비롯한 분상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인상해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6~25층, 전용면적 60~85㎡ 주택의 지상층 기준으로 지난 7월 15일 비정기 고시 때보다 ㎡당 9만1000원 오른 수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건축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이다.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하고 있다.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 조정도 실시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을 위한 간접공사비 적용 요율이 조정됐다. 조달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 따라 간접노무비 요율은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 요율은 6.0%에서 6.9%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간접공사비는 ㎡당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10% 가까이 상승했다.

서울 분양가는 이미 크게 오른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6208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6355만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여기에 기본형건축비까지 오르면서 분상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라인에서 바라본 잠실동 아파트 모습. /뉴시스

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최신 기술과 공법을 적용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성채리 기자 cr56@

신한 ‘땡겨요’ 회원 1000만명 돌파 이벤트

리뷰 작성시 할인쿠폰 제공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 회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고객과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땡겨요는 2022년 1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 수준의 중개수수료와 지역화폐 결제, 지역별 할인 혜택 등을 앞세워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늘리면서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이용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신한은행은 회원 1000만명 달성을 기념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고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이 땡겨요 앱에서 가맹점의 ‘추천해요’ 버튼을 누르고 글 리뷰를 작성하면 1000원 할인쿠폰을, 포토·영상

리뷰를 등록하면 2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가맹점을 추천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1만원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소상공인 가맹점 대상 지원도 병행한다. 고객 추천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00개 가맹점에 앱 내 ‘인증 배지’를 부여하고, 해당 가맹점에는 1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신규 입점 가맹점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중개수수료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통해 축적한 주문·매출 등 가맹점 영업 데이터를 금융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가맹점의 실제 매출과 영업성적을 신용평가와 대출 한도 산정에 반영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땡겨요 우수 가맹점 대출’을 출시했다.

/나유리 기자

수입 전기차시장 ‘테슬라·BYD’ 질주 獨 브랜드, 기술력·프리미엄 승부수

1~8월 신규등록 82% ‘테슬라·BYD’
가격 경쟁력 기반 높은 상품성 주요
독일 업체들 주행거리 등 성능 강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BYD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가격과 상품성을 앞세운 두 업체에 맞서 독일 브랜드가 기술력과 프리미엄 가치로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경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14일 한국수입자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에 등록된 수입 순수전기차는 11만4401대다. 이 가운데 테슬라와 BYD는 9만3742대로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8월에도 테슬라 모델 Y가 전체 트림 합산 9638대 등록되며 판매를 이끌었다.

가격 경쟁력은 두 업체의 강점이다. B YD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씨라이언7은 4490만원, 테슬라 모델Y 프리미엄 RWD는 4999만원부터 판매된다.

국내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각각 398km와 400km다. 테슬라는 자체 수퍼차저망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로 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BYD는 다양한 안전·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독일 업체들은 주행거리와 충전 성능으로 맞서고 있다. BMW 신형 iX350x Drive는 7990만원부터로 씨라이언7보다 3500만원, 모델Y보다 2991만원 비싸다. 대신 국내 인증 주행거리는 사양에 따라 588~611km에 달한다. 800V 전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대 400kW 급속충전을 지원하며 제조사 기준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약 21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가격 격차를 좁히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 1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CLA 200 일렉트릭 에센셜은 5290만원으로 모델Y보다 291만원 높다. CLA에는 800V 전기 시스템이 적용됐으며 최대 급속충전 출력은 CLA 200이 200

kW, CLA 250+가 320kW다. BMW가 긴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을 내세운다면 벤츠는 5000만원대 신차를 투입하며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모습이다.

결국 독일 브랜드의 과제는 테슬라·BYD보다 높은 가격을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주행능력과 충전 기술, 브랜드 가치로 설명할 수 있느냐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내연기관 시대와 달리 배터리와 충전,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구매 기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테슬라와 BYD의 경쟁력은 품질이 뒷받침되는 가성비”라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과 변속기가 없어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대에도 기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광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metro



LG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오픈한 B2B 전용 AI홈 체험공간.

/LG전자

LG전자, 중동지역 ‘AI 홈’ B2B 사업 확대

B2B 전용 AI 홈 체험공간 오픈

LG전자가 빠르게 성장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해 인공지능(AI)홈 기업간거래(B2B) 사업 확대에 나선다. 중동 지역 첫 B2B 전용 AI홈 체험공간을 열고 현지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업체에 통합 AI홈 솔루션을 제안한다.

14일 LG전자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브랜드샵에 B2B 고객을 위한 AI홈 체험공간을 공식 개관했다. 현지 프리미엄 주거시설을 본떠 실제 집처럼 꾸미고 맞춤형 빌트인 가전과 가구를 배치했다.

체험공간에서는 AI홈 허브 ‘싱큐온(T hinQ ON)’을 통해 집 안의 기기를 음성

으로 제어할 수 있다. LG전자가 인수한 스마트홈 플랫폼 ‘호미(Homey)’와 연동해 다른 브랜드의 사물인터넷(IoT) 기기까지 연결할 수 있다.

B2B 고객을 겨냥해 적용 범위는 건물 전체로 넓혔다. LG전자는 수나이어 일렉트릭, 아사아블로이 등과 협력해 건물의 설비와 에너지 사용을 통합 관리하고 보안까지 연계한 단기 솔루션을 선보였다.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와 호스피탈리티 사업자가 주요 고객이다.

LG전자는 늘어나는 개발 수요를 겨냥해 리야드 체험공간을 B2B 거점으로 활용한다. 연내 제다와 담맘 등 주요 도시로도 고객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포스코그룹, 동남권 ‘K-GX’ 거점 만든다

(녹색전환)

‘2026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참가
하이렉스 등 탈탄소 기술·제품 소개

포스코그룹이 수소환원제철을 중심으로 철강 생산부터 에너지·소재까지 아우르는 탈탄소 전환 구상을 제시한다. 그룹 역량을 결집해 동남권을 제조업 녹색전환(GX)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이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행사다. 올해는 ‘기후테크가 만드는 거대한 변화, 탈탄소 세상을 향한 도약’을 주제로 기후기술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다룬다.

올해로 6회째 참가하는 포스코그룹은 ‘POSCO, 탈탄소 철강으로 K-GX 생태계를 열다’를 주제로 포스코홀딩스·포스코·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이앤씨 4개사 통합 전시관을 운영한다.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포스코그룹 통합 전시관 조감도.

/포스코홀딩스

전시관은 탈탄소 혁신기술과 핵심소재, 무탄소에너지, K-GX 생태계 등 4개 존으로 구성된다.

탈탄소 혁신기술 존에서는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공정 모형과 고로 기반 브릿지 기술, 전기로 등 철강 탈탄소 기술을 선보인다. 하이렉스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포스코는 오는 2028년 포항에 연산 30만톤 규모의 하이렉스 실증설비를 준공하고 2030년까지

지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소재 존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데이터센터, 퍼지컬 AI, 신모빌리티, 전력 인프라 등 제조업의 디지털·녹색전환을 뒷받침하는 철강 제품을 소개한다.

무탄소에너지 존에서는 그룹의 에너지 사업과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전시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해상 풍력·태양광 사업과 해외 사업 현황을 소개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원전·소형모듈 원전(SMR)·고온가스로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 EPC 역량을 선보인다.

K-GX 생태계 존에서는 동남권 일대를 하이렉스 실증설비와 연계한 탈탄소 산업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구상을 공개한다. 원전 전력을 활용해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수전해 설비를 통해 청정수소를 생산해 수소환원제철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포스코그룹은 하이렉스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설비를 기반으로 동남권 클러스터를 ‘K-GX 산업 생태계’의 성공 모델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태광산업, 트리스톤자산운용 경영진 고소

경영권·주주 가치 논쟁 분수령

태광산업이 2대 주주인 트리스톤자산운용과의 갈등을 법적 대응으로 확대했다. 트리스톤이 태광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그룹 경영협의회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태광산업이 허위 주장이라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태광산업은 14일 황성택·이성원 트리스톤 대표이사 등 3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트리스톤이 태광산업 이사회와 이사 전원에게 보낸 공개 주주서한의 내용이 허위이며, 이를 통해 회사와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했다는 게 태광산업 측 주장이다.

앞서 트리스톤은 공개서한에서 태광그룹 경영협의회를 ‘유령과도 같은 기구’로 규정하며 태광산업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격과 설치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협의회가

이사회 밖에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사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다.

태광산업은 이에 대해 트리스톤의 주장이 과거와 현재의 경영 체계를 혼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계열사 간 협의기구는 지난해 8월 ‘경영지원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현재 ‘경영협의회’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영지원협의회 역시 계열사 간 협력과 시너지 제고를 위한 협의기구일 뿐 개별 계열사의 경영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양측의 충돌은 단순한 주주권원 논쟁을 넘어 태광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독립성 문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트리스톤이 향후 추가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고소가 양측 간 장기적인 경영권·주주 가치 논쟁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

LG화학, 선단 반도체 세정 소재 시장 공략

中 장화웨이와 사업협력 MOU

LG화학이 중국 정밀화학 소재기업 장화웨이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선단반도체용 초고순도 세정 소재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화학은 최근 중국 장화웨이와 반도체용 초고순도 이소프로필알코올(IPA)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장화웨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용 고순도 화학소재를 생산·정제해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LG화학은 고순도·고품질 C3-IPA를 공급하고 장화웨이는 이를 반

도체 세정용 HP-IPA로 정제한다. 양사는 원료 생산과 정제 기술을 연계해 중국 현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AI 반도체와 HBM 등 선단 반도체 고객사 공급을 추진한다.

HP-IPA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상업화에도 협력한다. 이를 위해 기술 교류와 정보 교환, 공동 마케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민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전무)은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반도체용 초고순도 원료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

삼성전자, 차세대 EHS 히트펌프 기술 선포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참가

삼성전자가 고효율 차세대 EHS 히트펌프 기술을 선보이며 주거용 냉난방 전기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냉난방과 온수를 한 대로 해결하는 제품부터 혁신기 난방 성능을 높인 제품까지 앞세워 히트펌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에 참가해 고효율 히트펌프 방식의 ‘EHS 올인원’과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행사로 인공지능(AI) 기반 재생에너지 혁신과 그린수소 협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EHS 히트펌프는 자연 상태의 공기열과 전기를 활용해 실내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솔루션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보일러보다 투입 에너지 대비 더 많은 열을 공급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다.

‘EHS 올인원’은 실외기 한 대로 냉방과 난방, 급탕을 동시에 제공한다. 냉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 생산에 재활용하는 열 회수 기능도 적용했다. 냉매는 기존 R410A보다 지구온난화 지수(GWP)가 약 68% 낮은 R32를 사용했다.

‘EHS 히트펌프 보일러’는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한다. 35℃ 출수 조건에서 계절성능계수(SCOP) 4.9를 기록해 소비전력 대비 약 5배의 난방 에너지를 낼 수 있다. 고효율 냉매 압축 기술을 적용해 영하 15℃에서도 최대 70℃의 고온수를 공급하고 영하 25℃에서도 난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구남영 기자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넘어 ‘규제 방식 성찰’에 집중”



오늘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에 부처 출범 10주년을 맞는 중기부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소영 후보자가 국회 청문 문턱을 무난하게 넘어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출범 이후 7번째, 여성으로서 5번째 중기부 장관이 된다. 또 장관 임명 직전 직업 기준으로 따지면 정치인 출신으로 5번째 중기부 장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두 번째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직후 언론에 처음 밝힌 소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 개혁 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데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후보자 “불합리 규제 해소 규제 부처 장관 설득 역할도 할 것”

코스닥 승강제엔 속도 조절 견해
중소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등
범정부 통합관리 체계 필요 의견

붓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정책 지원 영역인 스타트업, 벤처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 그리고 이해 당사자간 충돌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타다’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앞서 벤처기업계를 만난 자리에서도 “중기부는 규제 부처는 아니고 기업 활동의 애로가 되고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규제는 대부분 다른 부처들이 가지고 있다”면서 “중기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게 두진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장관이 된다면 타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일을 중기부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규제 부처 장관들과 토론하고 설득하는 역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는 코스닥시장을 기업군별로 구분하는 승강제의 개편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종애와 실적 중심의 획일적인 구분은 기업 간 서열화와 낙인효과를 낳고 장기 R&D가 필요한 AI·답테크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전하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벤처투자 회수시장과 관련해 기업공개(IPO)에 편중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인수합병(M&A)·세컨더리펀드를 확대하고 M&A 플랫폼 지원과 대중견기업의 벤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거래 교섭 단계에서 비밀유지계약(NDA)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후보자는 인준 준비 기간 중소기업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소통에도 집중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후보자에게 ▲스타트업의 신산업·신기술 육성 ▲탄소중립·ESG 중소기업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 AI 확산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 영토 확장 ▲온·오프라인 유통과 소상공인 공정거래환경 조성 ▲정년연장 합리적 도입 및 주52시간제 완화 등 6대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 5급 3특 성장 엔진 전략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더 구체화하고 명시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해묵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견해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력 도입부터 체류·취업·정주까지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성화보다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선발·도입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체류·취업과 정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HS효성, 울산에 실리콘 음극재 공장 신설

2030년까지 3단계 걸쳐 체제 구축
총 1.2조 투자… 울산 시민 우선 채용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가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울산에 실리콘 음극재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 시장 공략에 나선다.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는 울산시청에서 울산시와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실리콘 음극재 대량생산 체제를 갖춘다.

우선 3000억원을 투입해 2028년 1분기까지 연산 5000톤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MPK-1)을 건립한다. 이후 2·3

단계 투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고 급속 충전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배터리업계의 주요 기술 개발 분야로 꼽힌다.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는 HS효성그룹이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벨기에 소재기업 유미코아(Umicore)와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이번 투자는 HS효성그룹이 계열분리 이후 추진하는 첫 신사업이다.

공장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는 울산 시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

허가를 비롯한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이거수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소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조선·방위 산업 등 주요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라며 “특히 효성그룹의 발상지인 울산을 첫 번째 투자지로 선택한 만큼, 첨단 생산기지 재편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울산의 차세대 배터리 핵심소재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가온전선 기자 wkh@

중기부,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지원

내달 6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기술검증(PoC)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10월6일까지 모집한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방산(국방부·방위사업청)·기후테크(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 개방형 혁신 수요를 발굴하고 수요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연계해 스타트업의 기술검증(PoC)과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공공데이터를 스타트업에 개방하고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월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협업 과제를 모집하고 공공기관 과제 제안 방식(Top-Down)으로 18개 기관의 22개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 가운데 국가데이터처가 제안한 과제는 축제·명절 등 행사기간 주요 지역의 인구밀집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국민안전 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공공기관 제안(Top-Down) 과제를 해결할 창업기업 2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뽑힌 스타트업에는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검증(PoC)·시제품 제작 등 협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 및 기술개발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미공개 데이터를 활용하길 원하는 스타트업 제안 방식은 스타트업 63개사가 신청해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와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공공기관 제안 방식과 같은 협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기술개발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가온전선, 수상태양광에 170억 규모 ACF 케이블 공급

첫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수주

가온전선이 육상태양광 사업에서 검증한 케이블 기술을 수상태양광 분야에 처음 적용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

가온전선은 석문호와 새만금 햇빛나눔 등 국내 주요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에 약 170억원 규모의 ACF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가온전선의 첫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수주이자 ACF 케이블을 수상태양광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2023년 비금도 육상태양광 프로젝트에 제품을 공급한 데 이어 적용 분야를 수상태양광으로 넓혔다.

ACF는 전력 케이블 외부에 보호용 알루미늄 외장을 적용한 배관 일체형 케이블이다. 별도의 배관 없이 포설할 수 있어



가온전선 군포 사업장 전경.

/가온전선

시공 공정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온전선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의 대형화에 대응해 대규모·장거리 ACF 케이블을 개발했다. 수면 위에서 시공하는 수상태양광의 특성을 고려해 시공 편의성과 유지보수 효율을 높였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면서 관련 전력 인프라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만금에 2030년까지 총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가온전선은 이번 공급 실적을 기반으로 후속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와 태양광, 발전소 등 대규모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특수 케이블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귀뚜라미보일러, AI 적용 ‘카본매트’ 선포

개인별 수면온도·습관 맞춰 난방 조절

귀뚜라미보일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카본매트를 추가로 선보이며 시장을 추가 공략한다.

귀뚜라미는 ‘AI 수면 제어 시스템’과 ‘AI 적정 온도 시스템’을 탑재해 개인별 수면온도와 습관에 맞춰 난방을 자동 조절하는 ‘2027년형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AI 온돌’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7년형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AI 온돌의 핵심인 ‘AI 모드’는 사용자의 수면 시 적정온도와 사용시간 그리고 자리아탈 여부를 판단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난방한

경을 제공한다.

스마트 리모컨 중앙의 ‘AI 버튼’을 3초간 누르면 AI모드가 작동한다. AI모드의 첫 번째 주요 기능인 ‘AI 수면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가 잠잘 때 선호하는 적정 온도와 사용시간을 판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수면패턴을 분석한다.

난방매트의 기본인 열선에는 특허받은 ‘이라미드 카본열선’을 적용했다. 160W 저전력으로 하루 8시간씩 한 달간 사용해도 월 전기료가 6900원대이며, 귀뚜라미의 독자적인 난방제어 기능인 ‘예코모드’를 사용하면 일반 난방 대비 전력 사용량을 13% 추가 절감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8평 옥탑방에 모인, **짠하지만 유쾌한 인생들!**

오늘도 버틴다!

뮤직 드라마

망원동 브런치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예매하기

이벤트엔 진짜 잘될 거야!

타격타격하다가, 어느새 **식구**가 된다!

2026.10.09 ~ 2027.01.31 | 대학로 루мина아트홀

“어디까지가 SNS인가”… 게임·포털도 청소년 규제 사정권

애플, SNS 기능 중심 연령등급 강화
방송통신위, 청소년 SNS 규제 검토
정부·업계, ‘명확한 기준’ 한목소리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향후 규제 대상을 인스타그램·틱톡 등 전통적인 SNS 사업자로 한정할지, 소셜 기능을 갖춘 게임과 포털·메신저까지 넓힐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월 앱스토어 연령등급 설명에 ‘소셜 미디어 기능’ 관련 질문을 추가했다. 이달부터 신규 앱이나 업데이트를 제출하려는 개발사는 해당 기능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애플이 제시한 기준의 핵심은 앱이 어느 카테고리에 등록됐는지 아니라 실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다. 소셜 피드 등을 통해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를 재배포·확산하고 조회·좋아요·댓글·공유 등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이에 따라 ‘게임’으로 분류된 앱도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가 피드를 통해 확산되



14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월 앱스토어 연령등급 설명에 “소셜미디어 기능” 관련 질문을 추가했다. /AI가 만든 이미지

고 다른 이용자가 댓글이나 좋아요를 남길 수 있다면 소셜미디어 기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애플은 해당 기능이 있다고 표시한 앱과 게임을 ‘소셜미디어’ 허용 시간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최소 13세 이상 연령등급을 부여한다.

◆게임·포털·메신저까지… ‘SNS 경계’ 흐려진다

주목할 부분은 이 기준이 전통적인 SNS 사업자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게임은 단순히 플레이하는 콘텐츠를 넘어 이용자가 캐릭터와 맵, 영상 등을 제작하고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게임 내부에 커뮤니티와 피드, 댓글, 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도 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도 애플의 변경된 연령등급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네이버는 숏폼 서비스 ‘클립’과 이용자 관심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

는 ‘홈피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특 역시 친구·오픈채팅 중심의 메신저에서 숏폼과 콘텐츠 탐색 기능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결국 네이버나 카카오가 SNS 사업자 인지를 단순히 가르는 것보다 하나의 앱 안에 검색·메신저·숏폼·피드·커뮤니티 등 여러 기능이 결합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기준으로 청소년 보호 의무를 적용할지가 핵심인 셈이다.

◆한국도 청소년 SNS 규제 논의… ‘어디까지 SNS인가’ 관련

애플의 변화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논의와도 맞물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연령별 단계적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서비스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당시 국회에도 관련 법안 약 7건이 발의된 상태라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관련은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SNS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다. 인스타그램·틱톡처럼 서비스 자체가 소셜미디어인

플랫폼만 대상으로 삼으면 게임이나 포털 안에서 사실상 유사하게 작동하는 피드·추천·공유 기능은 규제에서 빠질 수 있다. 반대로 기능을 폭넓게 적용하면 게임과 포털, 메신저 등 상당수 플랫폼이 규제 논의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과거 게임 섀도우제 경험을 고려해 청소년 SNS 규제에 선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연령 확인 의무화나 만 14세 전후 가입 시 부모 동의 제도 역시 충분한 공론화를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T 업계 관계자는 “SNS 규제 목적이 청소년의 과몰입이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는 것이라면 서비스 명칭보다 추천과 콘텐츠 확산 방식 등 구체적인 기능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며 “다만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일반적인 커뮤니티나 게임 기능까지 규제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30주년 맞은 TGS, AI·인디·B2B 품는다

(도쿄게임쇼)

참가 기업 1138개사·3999개 부스
AI 테크놀로지 파빌리온 영역 마련

오는 17일 개막하는 일본 최대 게임 전시회 ‘도쿄게임쇼(TGS) 2026’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TGS는 참가 기업 1138개사와 3999개 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 이어 행사 기간도 사상 처음 5일로 늘렸다. 해외 참가사가 일본 기업을 넘어선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인디게임, 기업 간 거래(B2B)까지 영역을 넓히며 글로벌 게임 산업의 종합 플랫폼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14일 일본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에 따르면 TGS 2026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다. 올해 참가 기업은 일본 540개사와 해외 598개사 등 총 1138개사로 역대 최대다. 전시장 규모 역시 3999개 부스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해외 참가사가 일본 참가사보다 58개사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일본 게임사를 중심으로 출발한 TGS가 글로벌 게임 기업과 개발사,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도쿄게임쇼(TGS) 2026 대표이미지.

행사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다. 콘솔·PC·모바일 게임 신작을 전시하는 데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게임 개발 기술, 기업 간 거래(B2B) 등 게임 산업 전반으로 영역을 넓혔다.

올해 전시장에는 ‘AI 테크놀로지 파빌리온’과 ‘비즈니스 솔루션’ 영역이 마련된다. AI가 게임 개발과 그래픽 제작, 이용자 경험 등 게임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관련 기술을 새로운 전시 축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이다. 일본과 파키스탄 게임 시장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등 해외 게임 산업과의 비즈니스 접점을 넓히는 행사도 예정돼 있다.

게임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른

인디게임에도 힘을 싣는다. ‘셀렉티드 인디80’에는 전 세계에서 1500개가 넘는 작품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80개 타이틀이 선정돼 무료 전시 기회를 얻었다.

선정된 80개 작품은 독창적인 게임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센스 오브 윈더 나잇 2026’에도 자동으로 출품된다. 최종 후보 개발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게임의 아이디어와 개발 과정을 소개한다.

글로벌 주요 게임사들도 신작을 앞세워 관람객 잡기에 나선다. 캡콤은 현장 부스와 온라인 방송을 병행하고 ‘몬스터헌터 와일즈’ 닌텐도 스위치2 버전 등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다. 행사 기간 별도 스테이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최빛나 기자

LGU+, 군 장병 자녀 AI 교육캠프 연다

300여명 참석… 디지털 역량 강화

LG유플러스가 군 장병 가족의 디지털 역량 확대를 위해 국방부와 함께 인공지능(AI) 교육프로그램인 ‘아이드림 챌린지 LG 유플러스 AI 플러스 캠프’를 진행한다. 14일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군 장병 자녀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통해 미래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제는 ‘특명! 엄마 아빠를 지켜라, 리틀 AI 가디언즈’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보호자 총 300여명이 참여한다.

참가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술공연과 다양한 AI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캠프의 핵심 프로그램인 AI 해커톤을 수행한다. 해커톤에서는 멘토의 도

움을 받아 센서와 코딩을 활용한 ‘가디언 로봇’을 직접 제작하고, AI를 활용해 발표 자료를 만든 뒤 결과물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활용하고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행사장에는 AI 포토부스, AI 모션트래킹존, AI 웹툰 제작, AI 보이스 체형 등 다양한 AI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일상 속 AI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며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조민선 기자 msjo@

KT, 금융·공공기관 AX 단계별 전략 제시

AX 인사이트 리포트 발간

KT가 금융·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 초기 단계에서 우선 성과 입증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KT는 ‘KTAX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7월 국내 은행·증권·보험·카드사 임직원 200명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 200명 등 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핵심 내용은 금융·공공 분야의 AX 추진 현황과 주요 과제, 망분리 규제 완화와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및 성공적인 AX 확산 방안 등

이다.

KT 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AX 실행 단계는 각각 59.5%,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행 기준은 AI 활용을 위한 개념검증(PoC)부터 일부 업무 적용 및 전사 확산까지다.

산업별 애로 사항을 살펴보면, 금융 분야는 AI 투자 성과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ROI) 입증과 신뢰성 확보가 과제다. 공공 분야는 예산 및 성과 측정 체계와 데이터 연계 등이 한계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단계별 핵심 과제와 AX 실행 방향을 제시했다. 실행 단계는 검토 전 관심 단계, 개념 검증과 부분 운영, 기관 전반으로 확산 등으로 나뉘었다.

/조민선 기자

SKT, 장기고객과 롯데월드 ‘밤샘 축제’

3000명에 특별한 밤 선물

SK텔레콤은 ‘T 장기고객 프로그램 어드벤처 데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어드벤처 데이는 SK텔레콤이 올해 개편한 ‘T 장기고객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지난 12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롯데월드 어드벤처 실내에서 장기 고객 3000명을 초대해 진행했다.

고객들은 롯데월드의 인기 실내 어트랙션을 이용하고 SK텔레콤이 준비한 체험형 이벤트에 참여했다. T빙고, 전국장기고객자랑, 타임캡슐 상점, T 휴대폰 결제 부스 등이다.

‘전국장기고객자랑’에서 ‘하늘을 달리다’ 무대로 최우수상을 차지한 김태진 씨는 “고객을 위해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SKT와 오랫동안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SK텔레콤 장기고객들이 ‘어드벤처 데이’의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에 참가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은 장기 고객 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일상에서 쉽게 누릴 수 없는 경험’을 테마로 시종별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계절에 따라 숲캉스 데이부터 테이블·콘서트 데이 등을 기획했다. 오는 12월에는 뮤지컬 ‘사카고’의 엄선된 화차를 장기고객을 위해 단독 대관하는 ‘뮤지컬 데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금리 오르자 은행·보험주 웃었다… 고금리 방어주 ‘부각’

위험자산서 예금·채권으로 자금 이동
이달 KRX 보험·은행 지수 동반 상승
주주환원으로 ROE 높이는 기업 유리

미국 금리선물 시장에서 보는 9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확률은 물가 발표 전날(11일) 72%에서 하루 만에 87%로 뛰었다. 일본은행(BOJ)도 이번 주 금리인상이 유력하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0일 3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씩 인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에 나서서 기준금리를 3.00%로 0.25%p 올렸고,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후 시장 금리도 급등하고 있다.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전거래일 보다 1.1bp 상승한 4.025%에 장을 마쳤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는 대체로 악재다. 이자 비용 부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할인율(미래에 벌 돈의 가치를 현재 기준으로 낮춰 계산하는 비율) 상승으로 인한 기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뉴시스

업가치 하락, 여기에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탈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보험·은행 등 금융주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1~14일) KRX보험지수는 2.09%, KRX은행지수는 5% 상승했다. 이 지수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한화생명 등 11개 종목

이 편입돼 있다. 이 기간 동안 상승한 KRX 업종 지수는 KRX 건설(5.63%), KB300 금융(3.30%), KRX 운송(2.35%) 등을 포함해 5개에 그쳤다.

우선 보험사는 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다. 보험사는 운용자산의 상당 부분을 국공채 등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이자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증권사는 금리 상승으로 투자

자금이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은행 예금이나 채권으로 이동할 경우 주요 수익원인 브로커리지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도 좋아진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먼 미래에 돌려줄 보험금을 회계상 부채로 잡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 부채의 현재 가치 평가액이 줄어든다. 여기에 도수치료의 관리 급여화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손해율과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험 업종은 금리 상승에 따른 펀드멘털 개선 기대감 및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의 방어주 성격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적 측면에서도 수익성 관리에 따른 장기 손해를 하려세 전환, 손실 계약 비용 환입에 따른 연간 이익 개선 등 바텀 아웃(Bottom out)이 확인되고 있는 점이 보험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역시 대출금리 인상에 힘입어 순이자마진(NIM)이 확대되는 반사이익을 얻는다. 그 결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게 되면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좋아

진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주 시장 금리 상승 국면에서 고금리 방어주로 인지되는 은행과 보험은 양호한 흐름을 기록했다”며 “FOMC 결과에 따라 상승 탄력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은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수익률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했다.

하나증권은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엔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을 주목하라고 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글로벌투자분석실장은 “금리 인상기에는 (빚을 내 투자하는) 기업의 외형 성장보다는 주주환원을 통해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좋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3년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당시 S&P 500에서 ROE 상승 폭 상위 3개 업종은 평균 10.4% 오른 반면, 하위 3개 업종은 4.7% 하락했다. 국내에서는 기아·LG·현대글로비스·GS 등이 관심 종목으로 꼽힌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국민연금 새 CIO에 이규홍… 투자전략 주목 원화 강세에 갈린 음식료주… 해외 비중 변수

민간 운용사·공적연기금서 경험
신임 복지이사에 김대순 전 본부장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을 이끌 새 수장에 이규홍 전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장(CIO)이 선임됐다. 민간 자산운용사와 공적연기금에서 운용 경험을 쌓은 인사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이끌게 되면서 향후 자산배분과 투자전략 변화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규홍 전 사학연금 CIO를 신임 기금이사로, 김대순 전 국민연금공단 정보화본부장을 신임 복지이사로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신임 이사는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며 직무 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신임 기금이사는 삼성자산운용과 DB자산운용, 이스트프린스자산운용(현 카디아자산운용) 등을 거쳐며 민간 운용업계에서 투자 경험을 쌓았다. 이후 NH-A



이규홍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김대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mundi자산운용 CIO와 아센다스자산운용(현 캐피탈랜드 투자운용) 대표이사를 거쳐 사학연금공단 CIO를 역임했다. 법무법인 세종 기업금융부문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뿐 아니라 사모펀드(PEF), 부동산·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의 사결정과 운용을 총괄하는 자리다. 국민연금의 자산배분과 위탁운용사 선정 등이 국내 자산운용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임 CIO의 투자 방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민간 운용사와 공적연기금에서도 두 CIO를 경험했다는 점이 이 신임 기금이사의 특징이다. 시장 상황에 따른 자산 배분은 물론 연기금 특성에 맞는 장기 투자전략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경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신임 기금이사는 민간 자산운용 경험과 공적 연기금 운용 경험을 두루 갖춘 자산운용 전문가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임 복지이사는 국민연금 내부 출신인 김대순 전 정보화본부장이 임명됐다. 복지이사는 복지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김 신임 복지이사는 1999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해 전략경영부장, 미래혁신기획단장, 정보화본부장 등을 거쳤다. 노후준비지원과 장애인지원 등 공단의 복지사업 전반을 맡는다.

/신하은 기자

하나증권, 업비트 글로벌과 디지털자산 협약

상품 설계·인프라 구축 등 협력
싱가포르 거점 사업 기회 발굴

하나증권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업비트 글로벌과 디지털자산 및 금융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비트 글로벌은 업비트의 해외 디지털 자산 사업을 총괄하는 싱가포르 소재 지주사다. 양사는 하나증권의 금융·자산운용 역량과 업비트 글로벌의 디지털자산 기술 및 해외 네트워크를 결합해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협력 분야는 디지털자산 운용 사업모델 개발을 비롯해 관련 상품·서비스 설계 및 출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공동투자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여부와 방식은

각국의 관련 제도와 시장 환경을 고려해 결정한다.

싱가포르를 글로벌 사업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나증권은 현지에서 자산운용사 HAMA(Hana Asset Management Asia)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비트 글로벌도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양사는 현지 네트워크와 보유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 협력 분야를 단계적으로 넓힐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하나증권이 추진 중인 STO 사업과도 맞닿아 있다. 하나증권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전통 금융상품을 토론티 방식으로 발행·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강성욱 하나증권 대표는 “STO 제도와



정영균 하나증권 IB그룹장(왼쪽)과 김국현 업비트 글로벌 대표가 11일 디지털자산 및 금융 분야의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증권

속도에 맞춰 발행 플랫폼 등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내년 STO 시장 본격화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국현 업비트 글로벌 대표는 “양사가 보유한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환율 급락, 해외 비중 클수록 주가 부진

원화값이 뛰면서 국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식음료 관련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원화값 강세로 원재료 상승 부담과 매출 확대를 노릴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각 사 2분기 실적 발표일 이후(8월 11일~9월 14일)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5.34%)과 비교할 때 빙그레(22.94%)와 롯데월드(12.50%)는 나란히 웃은 반면 삼양식품(4.47%)과 KT&G(-3.78%)는 울상을 지었다. 다만 농심(5.44%)은 코스피 상승률을 근소하게 웃돌았다.

실적만 놓고 보면 다섯 곳 모두 합격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롯데월드프드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8.5%, 같은 기간 대비 KT&G는 18.5%, 삼양식품은 46.7%, 농심은 47.6%, 빙그레는 159.9% 각각 증가했다. 시장 기대치와 비교해도 대체로 웃돌았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롯데월드프드가 35%, 빙그레가 26%, 농심이 16%, KT&G가 5% 각각 상회했고, 삼양식품도 컨센

서스에 부합했다.

증권가는 원화 강세가 주가를 가른 것으로 분석한다. 원·달러 환율은 3분기 들어 13.22% 떨어졌다. 환율 하락은 통상 수출기업에 악재다. 달러로 번 매출을 원화로 환산하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음식료 업종은 원재료 대부분을 달러로 수입해, 원가절감 효과는 업종 전체가 고르게 누린다. 결국 해외 매출 비중이 클수록 환산손실이 원가절감분을 넘어서고, 낮을수록 원가절감 효과만 남는 구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음식료 업종은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고 외화 부채가 많아 원화 강세 시 투입 원가 하락과 외화 순부채 평가손실 축소 효과가 나타난다”며 “다만 최근 해외 사업 비중이 커지며 종목별 환율 영향력은 엇갈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가 폭락이 컸던 세 종목은 해외 매출 비중이 컸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2025년 연간 기준 해외 비중은 삼양식품 80%, KT&G 50%(담배기준, 연결 기준 33%), 농심 44%(해외법인+수출), 롯데월드 23%, 빙그레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아영 기자 aykim@

NH투자증권, 가지농가 찾아 일손돕기 봉사

배광수 사장·임직원 30여명 참여

NH투자증권은 지난 12일 광명시 하안동의 가지 재배 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배광수 NH투자증권 사장과 WM사업부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가지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잎 정리와 손지르기 등의 작업을 도왔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가 지원 프로그램인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NH투자증권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함께하는 마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 일손돕기 외에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마을 숙원사업 지원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배 사장은 “농협그룹의 일원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농상생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노사발전재단, 남아시아 5개국에 ‘공공고용서비스’ 자문

ADB 주관 ‘남아시아 기술지원사업’ 1호 스리랑카… 공무원 10명 초청
韓 고용서비스 운영 경험 등 공유

노사발전재단이 남아시아 5개국에 대상으로 ‘공공고용서비스 역량 강화’에 대한 자문을 시작했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관하는 ‘남아시아 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호 지원 대상국은 스리랑카다. 방한 대표단이 한국의 경험을 참고해 자국의 정책과제를 진단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재단은 이달 14~18일 기간 스리랑카 노동부 인력·고용국 공무원 10명을 초청해, 한국의 고용정책과 공공고용서비스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발전 경험과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 직업훈련-고용 연계, 청년고용 지원 등 정책과 현장사례를 공유하게 된다”며 “이를 토대로 스리랑카의 여건에 맞는 공공고용 정책의 우선과제 및 실행방안을 함께 모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뒷줄 네 번째)이 14일 서울 모처에서 스리랑카 노동부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제도를 단순히 소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강의-현장 방문-국가별 토론-액션플랜(실행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교육 첫날인 이날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 공공고용서비스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재단은 한국의 고용서비스 발전과정과 중앙-지역 간 전달체계,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또 참석자들과 스리랑카 노동시장과 공공고용서비스 현황을

바탕으로 정책 우선 과제를 논의했다.

15일에는 한국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경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와 직업교육훈련의 연계체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해 고용24, 노동시장정보시스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등 데이터·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의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16일에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원스톱 전달체계를 살펴본다. 이어 한국의 고용

하경제 운영 경험과 노동이주 및 귀환노동자 지원정책을 공유한다. 스리랑카가 직면한 국내 인력 활용과 해외 인력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17일에는 청년의 학교-노동시장 이행과 청년고용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외대 진로취업지원센터와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나무를 찾아, 대학 단계의 진로·취업지원과 지역기반 청년고용서비스 운영 사례를 살펴본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앞선 정책학습 및 현장방문 결과를 종합하여 스리랑카의

정책 우선과제 및 실행계획을 도출한다. 한국의 정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스리랑카의 노동시장 여건과 정책수요를 고려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초청연수에서 도출된 정책과제와 실행계획은 본국에서 구체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향후 스리랑카 현지 이해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내용을 구체화한다. 이후 실질적인 정책개선 및 후속 정책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재단이 그리는 지원 목표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연수는 재단이 ADB와 같이하는 첫 번째 국제협력 사업으로서, 한국의 정책 경험을 토대로 스리랑카가 자국의 노동시장 여건에 맞는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ADB 및 남아시아 각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고용노동정책 경험이 각국의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북항마리나 스포츠센터 아쿠아시설 ‘인기’

부산항만공사 “年 7만명 시민 방문”
6개 레인 수영장·24m 다이빙풀 보유
재개장 후 운영 시간 대폭 연장

부산항만공사는 14일 ‘북항마리나 스포츠센터’로 재개장한 북항 재개발지역 내 아쿠아시설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새 단장은 시민들이 재개발 지역에 보다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센터는 지난달 하순 3년 차 정기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달 초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북항마리나 아쿠아시설은 6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영남권 최고 수심인 24m 다이빙풀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7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지역대표 해양레저시



북항마리나 스포츠센터 내 다이빙풀.

/부산항만공사

설이다.

이번 재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운영시간 확대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던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대폭 연장했다. 이에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려는 직장인과 일반 시민의 방문이 급증했다. 특히 재개장과 함께 모

집한 정규 수영 강습은 온라인접수 개시 직후 전석(8개 시간대 360명) 마감되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공사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다이빙풀 운영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하루 2개 시간대(오전, 오후)로 운영 중인 다이빙풀을 다음 달부터 하루 3개 시간대로 늘려, 이용객의 시간대 선택 폭을 넓히고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북항마리나 스포츠센터는 북항재개발 지역이 시민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핵심 찬수공간”이라며 “재개장에 보여 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세에도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7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 당 1859.1원으로 전주보다 1.1원 내렸다.

/뉴시스

중동 전쟁에도 지난달 원유 도입 9.8% ↑

대한석유협회 “정부의 적극적인 원유수급 지원·비축유 스와프 효과”

중동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악재 속에서도 정부의 수급 지원과 정유업계의 원유 확보 노력에 힘입어 국내 석유제품 수급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초기 급감했던 원유 도입량은 빠르게 회복돼 지난 7월에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14일 대한석유협회(KPA)에 따르면, 전쟁 초기 원유 도입 차질로 지난 4월 국내 원유 도입량은 2010년 이후 최저치(약

6450만 배럴)까지 떨어졌으나,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원유 확보 노력으로 원유 도입량이 빠르게 회복됐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석유수급통계를 보면, 7월 원유 도입량은 9318만 배럴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했다.

석유협회는 “계속되는 중동 전쟁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원유수급 지원과 비축유 스와프 시행 효과로 원유 공급 차질 문제가 사전적으로 해소됐다”며 “국내 정유사들이 최고가격제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휘발유·등유·경유 등 필수 석유제품의 국내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식품부 추석 명절 앞두고 축산물 공급 확대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공급을 확대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공급량을 평상시에 비해 각각 30%, 40%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생산자단체 자조금을 활용해 전국 대형마트 할인행사 지원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둔 14일 충북 음성시의 농업 축산물공판장을 찾아 수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소비자들께서 뜻깊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도축 작업량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소·돼지고기 등의 수급 동향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마사회 애니메이션, 영화제 개막작 선정

‘서울인디애니페스트’와 홍보 협약

한국마사회방송센터가 ‘제22회 서울인디애니페스트 2026’과 상호 홍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 유일의 독립애니메이션 영화제로 이달 17~22일 기간 CGV 연남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마사회의 애니메이션 ‘홈스트레치’가 영화제 공식 개막작 4편 중 하나로 선정됐다. 서평원 감독과 함께 제작했다. 이 애니메이션은 개막식 및 개막 특별색션 ‘두루두루: 한국 애니메이션 쇼케이스’에서 관객과 만나게 된다. 홈스트레치는 제주목장에서 자란 소녀 ‘여울’이 상경해 도시의 속도에 적응해 가며, 단짝 말 ‘호리’와의 추억을 되새기는 1분 분량의 단편 애니메이션이다.

올해로 22화째를 맞은 서울인디애니페스트의 슬로건은 ‘두루두루’다. 숫자 2를 둘둘로 읽어 여기저기 빠짐없이 골고루 감싸 안는다는 뜻을 담았다. 개막 색션은

창작자의 외주 작업이 단순한 의뢰 작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표현과 기술을 실험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마사회의 홈스트레치는 메이플스토리 IP 기반의 ‘디어 마이 히어로’, AI 기술을 접목한 ‘그레도, 라이언’, 이승윤 뮤직비디오 ‘무얼 흠치지’와 함께 상영된다. 광고·게임·음악·AI를 넘나드는 독립애니메이션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구성이다.

마사회는 또 자체 보유한 방송 인프라로 영화제 알리기에도 나선다. 서울·부산·경남·제주 등 전국 3개 경마공원의 초대형 전광판과 전국 지사, 모바일 ‘더비온’ 앱을 통해 영화제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송출하며 관객들에게 영화제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광고 영상이 단순 홍보를 넘어, 창작자의 개성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영화제 공식 개막작으로 관객과 만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대산산단 화학사고, 해양 확산 막는다

기후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6개 기관·46개 사업장 ‘맞손’

석유화학 전용부두가 밀집해 화학사고 발생 시 해양 오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민관이 함께 신속 대응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5일 서산시 대산읍 소재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대산산단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제지원체

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의 민관 합동 공동방제지원체계 구축은 2024년 울산, 2025년 여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협약에는 화학물질안전원을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서산시, 평택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서산소방서 등 6개 행정기관과 대산공단협의회,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46개 사업장) 등 2개 민간 협의체가 참여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업의 비즈니스를 더 특별하게

출장부터 기업행사까지, S&Miles가 함께합니다

기업 맞춤 MICE · 인센티브 전문 여행사 S&Mi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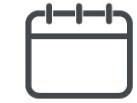
철강·금속 산업 전문성

산업 특성을 이해한 전문 노하우로
최적의 출장·행사 서비스 제공.



해외 네트워크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업 맞춤 일정 설계

목적과 예산에 맞춘 최적의 일정과
프로그램 설계



24시간 지원 서비스

현지 긴급 지원 및 상담 서비스로
안심 비즈니스 지원



현지 운영 지원

숙련된 현지 운영팀이 행사 전 과정
원활하게 관리

기업 맞춤 인센티브 투어

목적과 예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기업 골프 행사

기업의 목적에 맞는 골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고객사 사은 행사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해외 워크숍·세미나

항공·호텔·회의·관광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기획 → 항공 → 호텔 → 현지 운영 → 귀국

ONE STOP 서비스!

2026 글로벌 산업 전시회

항공 + 호텔 + 여행자보험 패키지로 편리하게!



아시아 대표 금속가공 전시회

MWCS 2026
CIIF 동시 개최



상하이(Shanghai) · 중국

2026. 10.12(월)~10.16(금)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Shanghai)
국가전람중심 (NECC)

1인 129만 원~

4박 5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일본 최대 공작기계 전문 전시회

JIMTOF
2026



도쿄(Tokyo) · 일본

2026. 10.26(월)~10.31(토)

Tokyo Big Sight (도쿄 빅 사이트)
전시장 : 전관 (East & West Halls)

1인 155만 원~

5박 6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세계 밸브 산업의 중심

VALVE WORLD
EXPO 2026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6. 12.01(화)~12.03(목)

Messe Düsseldorf
HALL 1 · HALL 3

1인 215만 원~

3박 4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상기 요금은 기준 출발일 및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호텔 예약 상황에 따라 실제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업전문 여행사

기업 출장 · 인센티브 · MICE S&Miles와 상담하세요!

맞춤 기획서 · 견적 무료 컨설팅!

☎ 02-3487-2800
@ smkang@snmiles.com
www.snmiles.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0



에스앤마일즈 여행사

경남, 조선·해양산업 AI 전환 속도… 글로벌 기술거점 발돋움

K-조선 비전·예산안 적극 대응
선박 가공 공정 자율제조 기술 검증
부산·울산·전남 등 지역협력 확대

경남도는 정부의 'K-조선 미래 비전'과 2027년도 예산안에 발맞춰 경남을 조선·해양 산업 인공지능(AI) 전환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기술 선도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5월 13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김정관 산업부 장관,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진 강화 ▲시장 확대 ▲상생 생태계 구축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 합동으로 1조원을 투자해 설계·생산·운영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자율 운영 AI 조선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조선소 생산성을 공 정별 최대 5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내 뒀다.



K-조선 초광역 협력벨트.

/경남도

2027년 예산안에도 제조업 AI 대전환을 위한 자율 제조 생태계 구축, 지역주도 5극 3축 성장 엔진 프로젝트, 제조안목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 중소 제조 기업 퍼지컬 AI 실증 등이 반영됐다. 거제·통영을 중심으로 대형·중소형 조선소와 기자재 기업이 밀집한 경남은 조선·해양 사업체 2633개, 종사자 5만 2562명을 갖춘 국내 최대 조선 산업 거

점이다. 수출액은 70억 9000만달러이며 올해 7월 기준 수주잔량은 국내 전체의 46.4%를 차지한다.

도는 이 같은 기반 위에 조선·해양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역량을 집적해 '대한민국 조선·해양 제조 AI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8월 준공한 중소형 조선소 생산

기술 혁신(DX) 센터를 거점으로 ▲조선 현장 압목지의 데이터화 ▲퍼지컬 AI 실증 ▲선박 가공 공정 자율 제조 기술 검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형 조선소와 중소 협력업체 간 상생 협력, 부산·울산·전남 등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 디지털 조선소 시장이 올해 20억 6000만달러에서 2030년 47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만큼 조선업계의 AI 전환 경쟁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화 도 산업국장은 "경남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핵심 생산 기지이자 미래 조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정부의 K-조선 미래 비전과 2027년 예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남을 조선·해양 퍼지컬 AI와 제조 AI 전환의 중심지로 만들고, 대한민국 조선 해양 산업이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영천시

‘렛츠런파크 영천’ 정식 오픈

영천시는 지역 숙원사업인 ‘렛츠런파크 영천’이 개장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장식은 1만3022명의 방문객이 찾은 가운데 아리랑대무시범단과 육군3사관학교 군악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장 기념영상, 기념사와 축사, 개장기념 퍼포먼스, 기념경주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렛츠런파크 영천’ 개장을 계기로 관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을 확대하고, 방문객이 지역 관광지와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말산업 특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영천(경북)=김진곤 기자

학교법인 성지학원

권오경 부산외대 총장 선임

부산외국어대학교는 학교법인 성지학원이 부산외대 제12대 총장으로 권오경(64·사진) 한국어교육전문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오경 신임 총장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 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국문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 부산외대에 부임한 뒤 입학홍보처장, 기획처장, 교학처장, 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대학 행정 역량을 쌓았고, 교내 주요 혁신 과제도 이끌어왔다.

/부산=이도식 기자

김해시

‘비크릿 바랏 2047’ 비전 동행

주한인도대사관과 김해시가 지난 12일 김해시 연지공원에서 ‘비크릿 바랏 런 2026(Viksrit Bharat Run 2026)’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거주 인도인과 한국인 참가자들이 함께 달리며 건강과 우정을 다지고, 인도가 독립 100주년을 맞는 2047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국가 비전 ‘비크릿 바랏 2047’을 알리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고령달라스 주한인도대사와 정영두 김해시장을 비롯해 민홍철·김정호 국회의원, 조종현 김해시의회 의장, 서동신 김해시체육회장, 김영립 가락김해시종친회장, 국내 거주 인도인과 김해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칠곡군

제65회 칠곡국민체육대회 성료

칠곡군은 지난 12일 칠곡종합운동장에서 8개 읍·면 주민 8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5회 칠곡군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대회는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낙하산 이어달리기와 비전풍선탑 쌓기, 협동배구, 파크골프 다트 퍼팅 등 명랑운동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는 하늘높이솟과 게이트볼도 열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북도가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영남대학교,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새마을재단과 '새마을세계화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새마을세계화 사업’ 영토 확장

베트남서 경제협력 컨퍼런스 개최 현지 대학 등 사업협력 MOU 체결

경북도는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글로벌 새마을 경제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새마을세계화 사업을 경제·문화 분야 국제협력으로 확대하기 위한 교류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과 김일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관태환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이영석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베트남 지방정부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이날 시범마을 생산품 전시와 대구경북 기업 홍보부스를 통해 사업 성과와 경제 분야 연계 가능성도 선보였다.

경북도는 영남대학교,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새마을재단과 '새마을세계화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 경제·문화·교육 분야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대표단은 현지 경북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상 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대영전자 베트남법인을 찾아 생산 현장과 운영 현황도 살폈다.

경주엑스포대공원, 외국인 관람객 55% ↑

경북문화관광공공 입장수익 34% 증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올해 1~7월 경주엑스포대공원 관람객이 21만4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18만8000여 명보다 13% 증가하고, 입장수익은 14억3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10억7100만 원 대비 34%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람객은 40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5% 증가했다. 공사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높아진 경주의 국내외 인지도와 관광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 등이 실제 방문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원 자체 콘텐츠도 관

람객 증가에 힘을 보탰다. 지난 5월 'EX PO-REST 어린이 북크니'에는 책과 공연,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3일간 1만여 명이 찾았으며, 8월 운영한 공포 체험 콘텐츠 'EX-HORROR'에는 24,857명이 방문했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지난해 APEC을 통해 높아진 경주의 관광 경쟁력이 올해 실질적인 관광 수요와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야간형 콘텐츠부터 공연·축제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여 경주엑스포대공원이 국내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시,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장관상

‘부산형 AI서비스 구축·고도화’ 발표

부산시는 지난 10~11일 이틀간 열린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발표대회는 전국 지방 정부의 인공지능(AI)·디지털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여는 행사로, 올해는 제주에서 열려 전국 15개 시·도가 출품한 사례 가운데 서면·국민심사 등을 거쳐 8건이 본선에 올랐다.

대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재난 상황 전파 시간을 대폭 줄인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경남 김해시가 AI 에이전트 기반 플랫폼으로 각각 본선 무대에 오르는 등 지방 정부의 다양한 AI 활용 사례가 함께 소개됐다. 부산시는 '부산형 AI서비스 구축 및 고도화' 사례를 발표했다.

부산형 AI서비스는 생성형 AI를 활

용해 행정지식 질의응답, 문서 초안 작성, 외부 자료 검색·분석, 예산 업무 지원 등을 지원하며 내부 행정 자료와 연계한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적용해 일반 생성형 AI 서비스와 차별화했다.

부산시는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해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자체 AI 모델을 구축하고 행정 규정·사례·지역 정보 등 약 16만건의 데이터를 학습시켰으며 현재 전 부서 약 6000명을 대상으로 문서 작성, 정책·보고서 초안 작성 등 총 22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남식 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수상은 부산시가 AI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형 AI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금오공대, ‘초광역 인재육성사업’ 주관

구미시 전략산업 인재 확보 기대

구미시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교육부 공모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대경권 컨소시엄 주관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초광역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동 양성하고 교육을 취·정업과 지역 정주, 기술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경북도가 주관하고 대구가 참여하는 대경권 컨소시엄은 금오공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8개 대학과 15개 기업이 참여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국비 6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첨단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AI 제조

로봇 분야 융합인재 3000명을 양성한다. 참여 대학들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 연계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해 취업과 창업, 지역 정주까지 연결하는 초광역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오공대는 반도체와 AI 제조로봇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대학 및 기업과 협력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5극3축 대경권 성장전략과 연계해 지역 대학·산업·지자체 역량을 초광역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역의 교육·산업 역량을 대구·경북권으로 확장하고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유통·식품기업 'K-푸드' 글로벌 전파

CJ제일제당, 한식인재 육성 김 등 'K-씨푸드' 경험 확장

내달 해외 'K-씨푸드 쿡킹 클래스' 진행
단순 제품수출 넘어 식문화·인재 저변 확대

CJ제일제당이 한식 인재 육성 플랫폼 '퀴진케이 이(Cuisine. K)'를 통해 한국 수산물과 한식의 해외 접점을 넓힌다.

CJ제일제당은 한국수산업회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영국·베트남·미국에서 'K-씨푸드 쿡킹 클래스'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영국 런던, 베트남 하노이, 미국 시애틀에서 현지 요리학교 학생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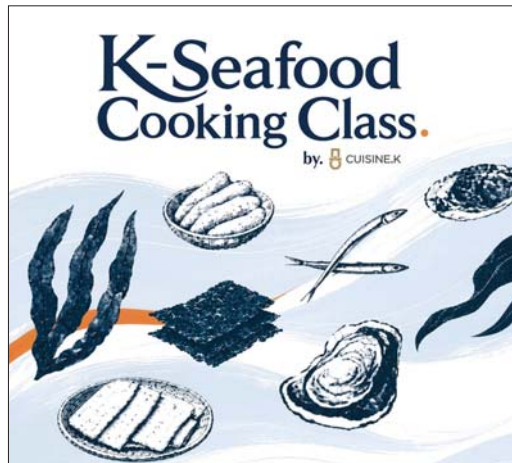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김·굴·전복·명란 등 한국산 수산물을 활용한 한식 메뉴를 현지에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 식재료를 그대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식문화와 접목한 메뉴를 선보여 한국 수산물의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영국 런던에서는 강레오 셰프가 강사로 나서 광어 세비체와 크리스피 김 카나페 등을 선보인다. 현지 조리과 학생들이 운영하는 한식 정찬 주간에 멘토로 참여해 K-씨푸드를 활용한 메뉴 개발과 팝업 준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이찬양 셰프가 전복 김밥이 튀김과 구운 전복·김 소스 등을 소개한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주최하는 '돌담길 축제'에서는 전복 김 누름 월남쌈을 주제로 한 쿡킹 클래스도 진행한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이연주 셰프가 간장 굴 술밥과 김 전 등을 선보인다. 한국 수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한식 식재료의 활용법을 알리는 한편 한식에 대한 관심을 실제 미식 경험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현지 한식 인재를 발굴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퀴진케이 K-씨푸드 쿡킹 클래스 포스터. /CJ제일제당

다. 베트남 탕롱대학교와 미국 SSC(South Seattle College)에서는 각각 K-씨푸드와 K-소스를 주제로 요리대회를 개최한다. 현지 젊은 셰프들이 한국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메뉴를 개발하도록 해 한식에 대한 이해와 조리 역량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찬양 셰프와 이연주 셰프는 각각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K-푸드의 해외 확장 방식이 제품 수출 중심에서 식문화와 인재 육성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 수산물은 김을 제외하면 해외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품목도 있는 만큼 현지 셰프와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고 맛보는 경험을 통해 식재료 자체의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퀴진케이를 통해 무궁한 한식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전 세계 소비자들이 K-푸드 식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농심, '신라면' 마케팅 강화 중동 등 소비자 점점 넓힌다

UAE 코믹콘 참가… 문화·콘텐츠 영역 공략
내달 중동 주요 대형마트에 특별 매대 마련

농심이 중동 최대 팝컬처 행사인 'MEFCC(Middle East Film & Comic Con·UAE 코믹콘)'에 참가해 신라면을 앞세운 현지 마케팅에 나섰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등 콘텐츠에 관심이 높은 젊은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며 중동 시장에서 신라면의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모습이다.

농심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전시장에서 열린 UAE 코믹콘에 신라면 브랜드 부스를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UAE 코믹콘은 영화·TV·애니메이션·게임·만화·코스프레 등을 아우르는 중동 지역 대표 팝컬처 행사로 올해 약 4만5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았다.

농심은 행사장에 신라면을 주제로 한 부스를 마련하고 포토존과 굿즈숍, 360도 카메라존 등을 운영했다. 신라면 제품을 전시하고 카팅과 스티커 등 관련 굿즈를 선보이는 한편, 외부에서는 분식 콘셉트의 푸드트럭을 운영해 제품 시식 기회도 제공했다.

공했다.

이번 행사는 신라면의 해외 마케팅 접점을 식품 소비가 이뤄지는 유통채널에서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농심은 앞서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게임스컴에도 참가하는 등 게임과 팝컬처 등 젊은 소비자가 모이는 글로벌 행사에서 신라면 브랜드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동 시장은 농심의 해외사업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현지 대형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와 함께 젊은 소비자층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를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 공략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다.

농심은 오는 10월 중동 주요 대형마트에 신라면 브랜드 콘셉트의 특별 매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행사에서 형성한 브랜드 경험을 실제 유통 현장의 구매로 연결해 중동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현지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통해 중동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농심 UAE 코믹콘 신라면 브랜드 부스 현장.

/농심

짧은 연휴에 딱… 근거리 해외 여행 관심집중

이동 부담 줄이고 휴양·관광 동시에
베트남 하롱베이·발리 우붓 등 추천

짧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여행보다 이동 부담을 줄이면서 휴양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외 여행지에 관심이 쏠린다.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부터 부모님을 모시는 효도여행까지 여행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베트남과 발리의 휴양지를 소개한다.

먼저, 하롱베이는 석회암 섬과 기암괴석이 펼쳐진 풍경을 크루즈로 둘러볼 수 있는 베트남 대표 관광지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성숙동굴과 티톱섬 등 주요 관광지를 배를 타고 이동하며 둘러볼 수 있다. 티톱섬 전망대는 약 450개의 계단을 오르는 코스로 짧은 시간에도 하롱베이의 전경을 볼 수 있다.

아이와 함께라면 관광과 숙박을 한 지역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인터컨티넨탈 하롱베이 리조트는 키즈 클럽과 워터 플레이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기에도 적합하다. 추석 당일인 9월 25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등 만들기과 전통 민속놀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반얀트리 랑코 웰빙 풀 빌라 프라이빗 풀.

/해시

휴양과 문화 탐방을 함께 하고 싶다면, 다낭 인근의 랑코를 추천한다. 해안과 산악 지형이 어우러진 베트남 중부 휴양지다. 인근에 베트남의 옛 수도였던 후에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호이안이 있어 휴양과 문화 탐방을 함께 계획할 수 있다.

숙소에서 휴식을 중심으로 일정을 짤다면 반얀트리 랑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빌라 형태의 객실과 수영장, 스파 및 요가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어 외부 관광 일정을 줄이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기 좋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이동 일정을 빡빡하게 잡기보다 랑코와 인근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유 있게 둘러보는 방식이 적합하다.

발리 '우붓'은 숲과 계단식 논 등 자연 환경과 현지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여러 관광지를 빠르게 이동하기보다 자연을 둘러보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여유롭게 여행 일정을 구성하기 좋다.

부모님과 함께라면 무리한 액티비티보다 숙소와 주변 관광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아윅강 주변에 자리한 만다파, 리츠칼튼 리저브에서는 열대우림과 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며 리조트 내 식음시설을 이용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바투르산 일출투어 등을 추가해 발리의 자연경관을 경험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원선 기자

CPLB, 17일 '쿠팡 온리 페스타' 개최

첫 오프라인 PB상품 체험 행사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자회사CPLB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앤더슨씨에서 '쿠팡 온리 페스타(Coupang Only Festa)'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CPLB가 2020년 설립 이후 오프라인 공간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PB 상품 체험 행사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과 생활용품, 뷰티, 패션 등 PB 상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

조사를 소개한다.

행사는 앤더슨씨 1~2층과 야외 공간에서 진행된다. '곰곰', '코멧', '탐사', '쭈' 등의 브랜드를 중심으로 신선식품과 쌀·잡곡, 간편식, 세제, 스낵·음료, 주방·생활용품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홀플래닛', '몰리트리', '비타할로' 등의 패션·뷰티·문구·생활용품도 선보인다.

CPLB는 오는 16일까지 사전 예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사전 예약 신청자는 6300명을 넘어섰다.

/김서현 기자 seoh@

다이소몰, 'Daiso-DAY 9월 신상' 기획전

가을 인테리어·뷰티 상품 등 200종

다이소몰이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Daiso-DAY 미고사'는 9월 신상'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기존 '전통 시리즈' 가운데 판매 반응이 좋았던 상품을 비롯해 가을 인테리어·패션용품과 신규 뷰티 상품 등 총 200여 종을 선보인다.

먼저 재입고 요청이 이어졌던 상품을 모은 '전통 베스트' 코너를 운영한다. '민화 틱케이스&스티커 세트'는 화조도와

호작도 등 민화를 활용한 일러스트를 적용했다. 반투명 종이 소재의 스티커로 다 이어리나 수납함 등을 꾸밀 수 있다.

가을철 수요를 겨냥한 패션·인테리어 상품도 마련했다. 바람막이는 블랙과 차콜, 다크 브라운, 라이트 그레이 등으로 구성했으며 스포츠웨어와 파자마도 함께 선보인다.

신규 뷰티 상품도 출시한다. VT코스메틱은 젤 클렌저와 젤리 스킨팩, 젤리 에센스 등으로 구성된 'VT PDRN 톤온 라인' 5종을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줄 서서 먹는 짜장·짬뽕… 불맛·칼칼함 한 컵에 다 담았다”

이마트24 컵라면 ‘대박각’ 시식기

불맛짬뽕라면, 직화 조리 떠올라
기름기 적은 가볍고 칼칼한 국물

고추짜장라면, 고추 매운맛으로
춘장 소스 단맛·느끼함 중화시켜

이달 정가 1800원서 할인 행사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은 편의점 업계에서 라면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다. 이마트24는 라면 카테고리 경쟁력 강화에 나서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중식당 ‘대박각’과 협업한 컵라면 2종을 선보였다. 대박각은 영업 시작 전 대기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방문객이 물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대박각의 짬뽕과 짜장을 컵라면으로 구현한 ‘대박각 불맛짬뽕라면’과 ‘대박각 고추짜장라면’은 각각 1800원이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의 특징을 편의점 컵라면에서 어느 정도 살렸는지 기자가 직접 두 제품을 비교 시식해 봤다.

먼저 맛본 제품은 ‘대박각 불맛짬뽕라면’이다. 뚜껑을 열면 면과 분말스프, 조리 후 넣는 별첨 향미유가 들어 있다. 포



이마트24가 최근 출시한 대박각 불맛짬뽕과 고추짜장.

장지에 적합한 조리법대로 분말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전자레인지로 2분간 조리했다. 마지막으로 별첨 향미유를 넣자 직화 조리를 연상시키는 불향이 비교적 선명하게 느껴졌다.

국물을 맛봤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특징은 기름기가 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일반적인 짬뽕 라면 가운데 기름지고 묵직한 맛을 강조한 제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볍고 칼칼한 편이다. 불향이 국물 전반에 배어 있으면서도 기름기가 입안에 오래 남지 않았다.

면은 일반적인 짬뽕 컵라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납작하고 두꺼운 형태보다 비교적 가늘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서

국물이 면에 배었고, 조리 직후에는 탄력 있는 식감이 느껴졌다. 맵기는 기자가 느끼기에 진라면 매운맛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밥을 곁들였을 때도 짬뽕 국물의 특징이 비교적 잘 유지됐다. 기름기가 강하지 않고 칼칼한 국물이어서 즉석밥과 함께 먹기에도 무리가 없었다. 국물의 매운맛과 불향을 고려하면 술을 마신 다음 날 해장용으로도 선택할 만하다.

다만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서 수분이 증발해 완성 후 국물 양이 다소 줄어들었다. 국물을 넉넉하게 먹고 싶다면 제품에 표시된 물의 양보다 조금 더 넣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조리가 완료 된 대박각 불맛짬뽕과 짜장라면의 모습.

/김서현 기자

이어 시식한 제품은 대박각의 ‘삼선장 짜장’을 바탕으로 만든 ‘대박각 고추짜장라면’이다. 건더기와 함께 면을 익힌 뒤 물을 따라내고 액상소스를 비벼 먹는 방식이다.

직접 조리해 보니 물을 모두 따라내기보다 일부 남겨두는 편이 소스를 비비기 수월했다. 면이 비교적 가늘어 물을 완전히 버리면 액상소스를 넣었을 때 다소 뻣뻣해졌다. 물을 3~4스푼가량 남긴 뒤 비비자 소스가 면에 비교적 고르게 섞였다.

소스를 비빈 직후에는 고추 특유의 알싸한 향이 먼저 느껴졌다. 처음에는 춘장의 달고 짭조름한 맛이 강하지만, 면을 씹을수록 청양고추 계열의 매운맛이 뒤따랐

다. 혀를 강하게 자극하는 매운맛보다는 고추의 향과 칼칼함이 강조된 편이다.

춘장 소스 특유의 단맛과 기름진 맛이 고추의 매운맛이 더해지면서 짜장라면의 느끼함도 어느 정도 줄었다. 짜장의 단맛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이어지는 제품보다는 매운맛이 뒤따르는 짜장라면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구성이다.

두 제품은 같은 중식당과 협업했지만 맛의 방향은 뚜렷하게 달랐다. 불맛짬뽕라면은 불향과 칼칼한 국물, 상대적으로 적은 기름기가 특징이었고 고추짜장라면은 춘장의 단맛과 짭맛에 고추의 매운맛을 더했다. 두 제품 모두 협업 대상이 된 메뉴의 특징을 컵라면에 반영하려 한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마트24는 9월 ‘IT’S RAMYUN TIME!’ 캠페인을 통해 대박각 라면 2종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1 행사와 제휴 결제 수단 할인 등을 적용하면 정가 1800원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칼칼한 국물과 불향을 선호한다면 불맛짬뽕라면, 단맛이 있는 짜장에 고추의 매운맛을 더한 제품을 선호한다면 고추짜장라면이 각각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비타 500 이온킥 제로’ 1000만개 판매

광동제약, 출시 8개월 만의 성과
‘샤인 레몬러쉬’ 맛으로 라인업 확대

광동제약은 ‘비타500 이온킥 제로’가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00만 개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 플레이버 ‘비타500 이온킥 제로 샤인레몬러쉬’를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 확대에 나선다.

비타500 이온킥 제로 샤인레몬러쉬는 샤인머스캣의 청량한 풍미에 레몬의 상큼함을 더한 이온음료다. 두 과일의 산뜻한 맛을 살려 운동이나 야외활동은 물론 일상에서도 시원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제품에는 비타민C 500mg과 나트륨·칼륨·마그네슘·칼슘·염소 등 전해질 5종을



광동제약 신제품 ‘비타500 이온킥 제로 샤인레몬러쉬’

담았다. 수분과 전해질에 비타민C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제로 칼로리·제로 당류에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광동제약은 비타500의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건강음료를 넘어 이온·스포츠음료 영역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비타500 이온킥 제로 샤인레몬러쉬는 광동제약 공식 온라인몰 ‘광동상회’를 비롯해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향후 마라톤과 대학교 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도 제품 체험 기회를 마련해 소비자 접점을 넓혀갈 예정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비타500 이온킥 제로에 보내주신 소비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새로운 맛의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취향과 음용 상황을 고려해 비타500 이온킥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프렙·파운데이션 조화로 보송한 피부 표현”

애경산업 ‘에이지투웨니스’ 신제품
스킨 퍼스트 히든 프렙 파운데이션 팩트

애경산업은 스킨 퍼스트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에서 앳고 정교한 피부 표현을 완성하는 ‘스킨 퍼스트 히든 프렙 파운데이션 팩트’(사진)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브랜드 최초로 프렙과 파운데이션 기능을 한 데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메이크업 전 단계에서 피부 상태를 관리해 주는 프렙 성분을 파운데이션 성분배합했다. 보송하면서도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기존 자사 파우더 대비 10배 조밀한 입자를 처방해 들뜨지 않는다.

이와 함께 엑토인, 판테놀, 병풀 세라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스킨케어 성분도 함유한다.

한편, 6가지 메이크업 방해 요소는 줄였



다. 인체적용시험에서 초미세먼지 흡착 방지 64.097% 개선, 블루라이트 61.7% 차단, 열 자극 202.5% 개선, 피지 29.1% 개선, 유분 42.3% 개선 효과 등을 확인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기존 세미매트 메이크업의 답답함과 들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라며 “프렙과 파운데이션의 조화를 통해 덧바르지 않아도 완벽한 커버와 편안한 지속력을 선사하는 새로운 세미매트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 무대에서 CDMO 경쟁력 알린다

내달 이탈리아·일본서 열리는
글로벌 바이오 행사 참가 예정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10월에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바이오 콘퍼런스에 연이어 참가해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알린다고 14일 밝혔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10월 6~8일(한국 시간)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의약품 전시회 ‘CPHI Milan 2026’을 비롯해 7~9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Bio Japan 2026’에 참가해 단독 부스를 운영한다.

이어 10월 12~15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World ADC San Diego’에도 참가한다. 회사는 글로벌 주요 바이오 행

사에 참가해 각국의 제약·바이오 기업과 파트너링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PHI Milan 2026’은 매년 유럽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의약품 전시회다. 이번 행사의 단독 부스에서는 대규모 상업 생산 역량을 비롯한 한·미 ‘듀얼 사이트(Dual Site)’ 경쟁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행사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인부스 프레젠테이션(In-booth Presentation)’을 통해 회사의 대규모 상업 생산 역량과 이종항체 분야 강점을 소개한다. ‘Bio Japan 2026’ 단독 전시 부스에서는 자동화 제조관리시스템(MCS), 디지털 트윈, 전산 유체역학(CFD) 시뮬레이션 등 품질 안정성과 생산 효율의 강점을 소개하고 글로벌

별 잠재 고객사와 파트너링 미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World ADC San Diego’에서는 롯데바이오로직스만의 ADC 플랫폼의 강점을 알리고 이미 검증된 글로벌 ADC CDMO로서의 기술 경쟁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회사는 올해 초부터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며 4건의 수주 성과를 공개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의 사용 승인을 획득하는 등 북미와 아시아를 잇는 듀얼 사이트 운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글로벌 파트너링을 지속하며 수주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K바이오팜, MSCI ESG평가 최고 등급

국내 제약기업 중 첫 3년 연속 달성

SK바이오팜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제약기업 가운데 3년 연속 AAA 등급을 달성한 것은 SK바이오팜이 처음이며, 현재 국내 제약기업 중 AAA 등급을 받은 기업도 SK바이오팜이 유일하다.

MSCI ESG 평가는 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주요 리스크와 기회 관리 역량을 글로벌 동종업계 기업과 비교 평가하는 대표적인 ESG 평가 체계다.

이번 평가에서 MSCI는 SK바이오팜의 기업행동, 인적자본 개발, 제품 품질 및 안전 등 주요 영역을 글로벌 상위 수준으로 평가했다. 기업행동 부문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회계·세무 투명성 등 윤리 경영 시스템이, 인적자본 개발 부문에서는 구성원 역량 개발 프로그램과 알리기 좋은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바이오팜 이동훈 사장은 “이번 결과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거버넌스와 책임 있는 경영, 인재 경쟁력 강화 및 알리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품질·안전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2026년 9월 16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주 제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일 시 2026년 9월 16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40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
	14:40~15:10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
강 연	15:10~15:40	김병우 대동그룹 개발부문장 전무 : 농업 모빌리티의 AX 및 GX 현황
	15:40~16:10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 New Commerce에 대응하는 물류
	16:10~16:40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 : 자율주행이 바꿀 한국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 -부산항 수출화물에서 미국 대륙횡단 왕복 노선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LG CNS, 인니 국세청 '코어택스' 구축 감사패

LG CNS가 국외 세무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공로를 인정 받았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행정시스템 '코어택스' 구축 감사패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세청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서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김홍근 부사장(왼쪽)과 이완 드주니아르디 재무부장관 특별보좌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대우건설, 노사합동 가족사랑 페스티벌 개최

대우건설은 지난 12일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과 한탄강관광지 일원에서 '2026 노사합동 가족사랑 페스티벌'을 연천군과 공동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직원과 가족 2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노동조합이 전사 규모의 가족행사를 제안하고 회사가 이에 동참하면서 마련됐다. /대우건설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온라인 역사관 개관

국민 건강을 지켜온 대한민국 대표 제약 기업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세기의 발자취와 창업 정신을 소개하는 디지털 공간을 마련했다. 유한양행은 '유한양행 100주년 기념 온라인 역사관'을 공식 개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역사관은 유한양행이 최근 편찬한 '유한양행 100년사' 통사를 바탕으로 구축됐다. /유한양행



태광그룹 실, 세화미술관 바젤리츠 전시 후원

명화 관람이 주는 감성적 여운을 일상 속 뷰티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이색 브랜드 경험이 펼쳐진다. 태광그룹의 뷰티 코스메틱 법인 실이 오는 27일까지 세화미술관에서 열리는 '게오르크 바젤리츠' 전시회를 후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게오르크 바젤리츠는 독일 신표현주의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알려졌다. 세화미술관 '게오르크 바젤리츠' 전시회 전경. /태광그룹



롯데웰푸드, 구강암 환자 돕는 '스마일 RUN' 후원

롯데웰푸드가 구강암·얼굴기형 환자를 지원하는 '스마일 RUN 페스티벌'을 후원하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검진을 진행했다. 롯데웰푸드는 전날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2026 스마일 RUN 페스티벌'에 자일리톨 껌 등 제품 1만3600여개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롯데웰푸드

현대차 정몽구 재단, 세대 잇는 클래식 앙상블 성료

‘2026 CMK 실내악 시리즈’ 선배 장학생-교수진 함께 무대에 올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클래식 음악 장학생과 지도교수진이 세대를 아우르는 앙상블 무대를 선보였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10일과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2026 CMK 실내악 시리즈'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인재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CMK 영아츠'의 하나로 마련됐다.

10일 첫 공연에서는 목관과 금관, 성악 무대를 선보였다. 목관 앙상블로 그리그의 '페르콘트 모음곡 1번' 중 '아침 기분'을 연주하고, 금관 오중주와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음악극으로 재구성한 성악 공연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열린 2026 CMK 실내악 시리즈 현악 무대 모습.

13일 공연은 피아노와 현악 앙상블로 구성했다. 두 대의 피아노를 연주자 4명이 함께 연주하도록 편곡한 '페르콘트 모음곡 1번'을 비롯해 피아노와 현악기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은 현악기 23대로 연주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메타모르포젠'으로 마무리했다.

장학생과 교수진은 공연에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4박5일 일정의 'CMK 앙상블 음악캠프'에 참여했다. 중학

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장학생들이 집중 연습과 워크숍,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과 소통을 경험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metro

SK AX, AI인재 양성 '장관상' 수상

AI 역량 인증 분야서 최초 사례

SK AX가 개발한 인공지능(AI) 역량 인증 체계가 정부로부터 AI 인재 양성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SK AX는 고용노동부 주관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우수 자격 체계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SK AX는 AI 부트캠프와 AI 리터러시 과정을 각각 생성형 AI 활용 1·2급 자격으로 인정받았다. AI 역량 인증 분야에서는 최초 사례다. 회사 측은 생성형 AI 역량 인증 프로그램이 갖춘 평가의 전문성과 실효성이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성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 'AI 증강' 사례로 높이 평가 받았다.

2급 자격인 'AI 리터러시'는 직군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AI 소양 확보가 목표다. 문서 작성과 데이터 구조화, 스프레드시트 활용, 기초 프로그래밍 등 일상 업무



11일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2026년 기업자격 정부인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오른쪽부터)SK AX 김민환 HRX추진담당, 한국산업인력공단 천학기 능력평가이사, SK AX 정대령 AX교육사업1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에 필요한 생성형 AI 활용 역량을 키우고 진단하는 데 활용된다.

1급 'AI 부트캠프'는 AI 전문 인재 육성 과정이다. 사내 데이터와 연동해 AI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등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AI 전문가를 양성한다.

두 인증 모두 최신 AI 모델이 탑재돼 진단부터 구성원별 맞춤 피드백까지 자동으로 제공된다. 또한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의 안전성·신뢰성·투명성 원칙을 반영해 시험 문항 출제와 평가 과정에서 편향을 최소화해 사람이 최종 결과를 검토·관리하도록 했다. /조민선 기자 msjo@

오뚜기, 함태호 창업정신 이어간다

함태호 명예회장 서거 10주기

오뚜기가 창업자인 함태호 명예회장(사진) 서거 10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열고 그의 경영철학과 사회공헌 정신을 되돌아봤다.

오뚜기는 지난 11일 경기도 안양시 함태호홀에서 함태호 명예회장 서거 10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 명예회장의 삶과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품질제일주의와 식생활 향상, 나눔 등 창업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함 명예회장은 1969년 오뚜기의 전신인 품림상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오뚜기 카레를 시작으로 스프, 케첩, 마요

네스·식초 등을 선보였다. 이후 '오뚜기 3분 카레' 등 즉석식품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과 식문화 변화에 대응했다. 특히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품질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우리금융, 조손가정에 추석 선물 전달

7000가구에 행복꾸러미 나눠

우리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맞아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우리금융그룹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저소득 조손가정 7000가구에 전달하기 위한 '우리금융 행복꾸러미 제작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초 서울 화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봉사활동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조손가정에 전달할 행복꾸러미를 직접 포장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금융

이번 봉사활동에는 올해 7월 본점으로 전입한 직원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본점에서 새롭게 근무를 시작한 직원들은 행복꾸러미 포장과 배송 준비에 직접 참여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에 힘을 보탰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기보, 호우피해 中소 보증사고 유예

‘사고특례조치’ 시행

기술보증기금이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

14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특례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부

실기업 처리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사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경북 안동시(임직면, 남선면, 임하면)·의성군(단촌면), 경남 거제시·통영시 등 행정안전부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그네슘, 활성비타민 B군
비타민 E, 감마오리자놀까지

맥스로 콕! 약으로 콕!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 신경통완화 · 육체피로 · 체력저하

마그비 맥스

기후적 체험에 대하여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여름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 창 너머 작은 잎사귀들이 기분 좋게 들썩인다. 베란다에 놓여 있는 바질 화분에는 햇빛이 비치고, 화분이 있는 베이지색 탁자 위에는 잎사귀들의 그림자가 점점이 내려 앉는다. 바람의 결을 따라 그림자도 함께 흔들린다. 저물어가는 여름의 풍경은 나른한 평온으로 사방을 드리운다. 바람과 햇빛, 습도가 알맞게 어우러져 몸에 새 살이 돋는 듯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2026년 여름은 지나치게 뜨거웠다. 폭염은 때로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고, 무기력해진 스스로를 마주할 때면 수치스러움마저 찾아들었다. 에어컨 없이도 견딜 만했던 어린 시절의 나는 사라지고, 몸이 마치 무너져 내리는 화반죽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폭염 아래 몸과 마음의 경계가 얇아지고, 몸을 통제하기도 힘들었다. 이것이 2026년 여름, 내가 지나는 '기후적 체험'의 실상이다.

지난 8월, 겹겹이 이어지던 폭염 속에서 눈길을 끈 앱 서비스가 있었다. '그늘로:무벽의 여름길'이라는 이름의 길 안내 앱으로, 한 대

학생의 기후적 체험에서 출발해 완성되었다. 이 앱은 폭염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그늘길을 안내해주고 있다. 한 언론에서는 이 앱을 켜고 걷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직접 비교 검증하기도 했다.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앱을 이용했을 때 그들의 비율이 20% 이상 늘었고,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확실히 걸을 만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개발자가 이 앱을 만들게 된 계기는 자신의 길고 긴 통학길에 있다고 한다.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관악구까지 매일 통학하며 폭염에 지쳤던 그에게 그늘길은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자신처럼 긴 통학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작이었다.

한 개인의 기후적 체험이 기술을 입으면 사람들에게 친절한 도구가 된다. 이 그늘길 앱은 반려견과 산책하는 아버지의 땀을 식혀주고, 오랜 루병 끝에 슬로우 러닝을 시작한 친구가 덜 지칠 수 있도록 한다. 한 시간이나 걸리는 출퇴근길, 버스 창가에서 사선으로 깊숙이 내리쬐는 햇살을 손그늘로 가려야 했던 이들의 수고를 덜어준다. 한 청년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후적 체험이 수많은 이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끼로 가득 찬 한 뼀 남짓한 땅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우리 눈 앞에는 열대의 정글이 펼쳐진다... 무성하기 이를 데 없는 커다란

나무들이 뻘뻘이 들어차 있음은 물론이다." 살충제 남용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렸던 환경주의자 레이첼 카슨의 저서 <센스 오브 윈드>의 한 줄기 문장이다. 그녀는 자연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느끼는 감각이야말로 지금의 지상을 존속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다. 늘 항상 자연 가까이에서 자연의 속살을 들여다보며 경이로움에 빠졌던 그녀의 기후적 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향한 글과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한 청년의 기후적 체험은 누군가의 열기를 식혀주는 유용한 그늘길로 결실을 맺었다.

모두의 기후적 체험이 곧바로 '누군가'의 이로운 대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기후적 체험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그 목소리를 통해 기후변화의 실상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모두의 그늘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통학길 기후적 체험을 들려보내지 않고, 그 감각에 집중해 그늘길 안내도를 만들어낸 청년의 이름은 유민준이다. 아직은 뒷모습만 보인 채 골목을 온전히 떠나지 않은 여름의 끝자락, 유민준의 기후적 체험이 건넌 그늘길 앱을 켜고 현관문을 연다. 오늘은 그가 안내한 그늘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볼 작정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차기 수협은행장 인선에 대해



기지 수협
안 재 선
(금융부)

신학기 Sh수협은행장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차기 수협은행장의 인선 시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달 21일 면접을 본 뒤 22일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면접자는 내부 인사 3명, 외부 인사 3명 등 총 6명이다.

이번 인선에서 외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이번 수협은행장 공모 접수 마감 한 시간 전에 깜짝 서류를 제출하면서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다트머스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로,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금융위원회 출신 현직 1급 고위 관료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이었다. 금융당국 내 요직 후보로 거론되던 고위 관료가 돌연 수협은행으로 눈을 돌렸다는 점을 두고 시선이 쏠린다.

이 원장이 FIU에 신입 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기려 한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원장은 FIU 취임 시기는 지난해 10월이다. 역대 FIU 원장들의 재임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직 금융당국 고위 관료가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은행장 공모에 나선 배경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수협은행은 지난 2022년 11월 강신숙 당시 수협중앙회 부대표를 행장으로 선임하면서 외부 출신 인사 대신 내부 인사를 택해 외풍을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내부

출신인 신학기 현 행장이 연이어 행장직에 오르면서 외풍 논란이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내부 출신 행장이 고작 두 차례 연이어 선임된 시점에서 외풍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협은행 내부에서는 벌써 노조가 후보자 검증에 나서겠다고 버르고 있다. 수협은행은 언제쯤 외풍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은행장 자리는 특정 인사의 다음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다. 한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수많은 임직원의 생존과 조직의 미래를 걸 만큼 은행장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현재 수협은행은 비은행 확대라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인선만큼은 후보의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경영 능력과 수협은행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wotjs4187@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5일 (음 8월 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많은 이동은 불길합니다. 60년생 입 조심하세요. 72년생 고집을 버리고 행동하는 것이 길합니다. 84년생 성에 맞는 직장을 찾았으나 능력부족으로 입사하기 곤란합니다.



49년생 지나친 자만심을 실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61년생 어린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3년생 승진운이 있습니다. 85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0년생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62년생 큰 이익이 있으나 여유가 없어 발견하지 못합니다. 74년생 고집을 버리세요. 86년생 이성운이 좋은 시기에 있습니다.



51년생 두서 없는 행동이 어찌 이뤄지겠는가. 63년생 혼자의 힘으로 목표 달성 어렵겠습니다. 75년생 참고 인내하면 노력의 결실이 있겠습니다. 87년생 운세가 좋지 않은 하루입니다.



52년생 아직 때가 아니니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64년생 곧 나아지니 휴식하세요. 76년생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세요. 88년생 재발된 병으로 가족에게 근심 주겠습니다.



53년생 가끔씩의 휴식은 약이 됩니다. 65년생 마음에 안정이 없고 중심이 없습니다. 77년생 금전거래를 하면 길합니다. 89년생 하는 일마다 다소 꼬이고 잘 안 풀릴 수 있으니 자제하세요.



54년생 바른 마음 가짐을 가지고 분수를 알고 행동하세요. 66년생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78년생 지금 하는 일에 열중하세요. 90년생 허황된 생각을 버리세요.



55년생 노력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67년생 집매매 귀인이 나타납니다. 79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오는 운입니다. 91년생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56년생 다른것은 다 필요없습니다. 건강하세요. 68년생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80년생 부채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92년생 이상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57년생 집안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69년생 새로 만난 사람과 오래 가지 못합니다. 81년생 혈압이나 스트레스를 주의하세요. 93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세요.



58년생 피하는 일에 활기가 넘쳐 흐릅니다. 70년생 여행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이 들끓습니다. 82년생 계속 움직이심이 길합니다. 94년생 투자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59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71년생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때입니다. 83년생 소망은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95년생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잘 배우도록 하세요.



김상회의四季 시민 배심원

법률 공부를 조금씩 접하며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이 법원이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진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시민도 갑자기 법원의 부름을 받고 법정的重要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바로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다. 배심원이란 일반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되어 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피고인의 유무죄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말한다.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시민들이 모여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 아닌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정에도 이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것이 국민참여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법정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한다. 유죄면 형벌의 종류와 정도에 관해서도 의견을 낸다.

물론 재판의 최종적인 판결은 판사가 내린다. 어떤 재판이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며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형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사건의 성격,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이 관할 지역에 살고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중에서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추첨한다. 이들에게 안내문과 출석통지서를 보낸 뒤, 재판 당일 법원에 나온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와 변호인이 질문을 던져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최종적으로는 재판에 따라 5명, 7명, 혹은 9명의 배심원이 최종 선정된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다는 우편물이 온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된다. 일반 국민의 상식과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 지식이 없어도 관계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95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9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학기 한길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4	3	8				1
8					1			
2	5				6			
		2		9				
9								6
				1		9		
			9				6	4
			1					5
3				6	5	2		9

결합형 스도쿠 153문제

결합형 스도쿠 110 문제집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합체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1	2	9	9	2	8	7	8
9	8	8	2	7	1	9	6	2
7	9	2	8	8	6	9	2	1
2	2	6	7	1	9	8	8	9
9	9	7	8	2	8	2	1	6
8	8	1	2	6	9	2	9	7
6	6	8	9	2	7	1	9	2
2	7	9	1	9	2	6	8	8
1	2	9	6	8	8	7	2	9

2	8	7	6	9	9	2	1	8
8	9	6	2	7	1	8	9	2
9	2	1	2	8	8	9	7	6
9	7	8	9	2	2	6	8	1
1	2	8	9	6	7	9	8	2
2	6	9	8	1	8	2	9	7
6	8	2	1	8	9	7	2	9
8	1	2	7	9	6	8	2	9
7	9	9	8	2	2	1	6	8

서울 아파트 거래 ‘뚝’… 대출규제·세 부담에 관망세 이어져

서울 토지거래허가신청 3012건
4개월째 감소… 전역 토허 후 최저
한강벨트7구·서남권 38.6% 감소
강북권·한강벨트 집값 상승세 지속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4개월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10월 달 연속 줄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거주 의무 유에 확대에도 신청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가격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서울 전역 지정 후 최저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 신규 신청은 3012건으로 전월 4618건보다 1606건(34.8%) 감소했다.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난 4월 8896건과 비교하면 5884건(66.1%) 줄었다.

토허 신청은 지난 4월을 정점으로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 8월



3012건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월간 기준 가장 적은 규모다. 지난해 11월 4019건보다도 1000건 이상 적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

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5만59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만4670건(97.6%)의 처리가 완료됐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와 7~8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지금조달 부담, 지속되는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8·3 세계개편안 역시 국회 심의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진 것으로 봤다.

◆한강벨트·서남권 38.6% ↓

8월 하루 평균 토허 신청은 150.6건으로 전월 209.9건보다 28.3% 감소했다.

모든 권역에서 신청이 줄었지만 감소폭에는 차이가 있었다. 한강벨트 7개구는 7월 1023건에서 8월 628건으로 38.6% 감소했다. 서남권 4개구 역시 913건에서 561건으로 38.6% 줄어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강남3구·용산구는 34.6%, 강북권 10개구는 31.4% 각각 감소했다.

전체 토허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강북권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강벨트 20.8%, 서남권 18.6%, 강남3구·용산구 11.7% 순이었다. 강북권 비중은 전월 46.4%보다 2.4%포인트(p) 높아졌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매물 출회와 거래 활성화를 위

해 확대하고 있는 ‘세입자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에도 아직 뚜렷한 거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8월 실거주 의무 유에 신청은 135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의 4.5%에 그쳤다. 전월 207건보다 72건(34.8%) 줄었다. 전체 토허 신청도 비슷한 폭으로 감소하면서 유에 신청 비중은 4.5%를 유지했다.

◆거래 줄었지만 가격 0.17% ↑

거래 신청이 크게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8월 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0.17% 올랐다.

강남3구·용산구는 일부 고가주택의 가격 조정 영향으로 전월보다 0.34% 하락했다. 서남권 4개구 역시 최근 단기간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등의 영향으로 0.99% 떨어졌다. 반면 한강벨트 7개구는 전월보다 0.52%, 강북권 10개구는 0.61%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호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유입이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지속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문 닫은 학교, AI교육·문화체험 시설로 변신

교육부-행안부, 폐교를 활력 거점으로
총 120억 투입… 지역 맞춤형 시설 개발

학생이 떠난 폐교가 어린이 놀이터와 생태체험장,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은 학교가 늘어나자 정부가 방치된 폐교를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문화 거점으로 되살리는 사업에 나선다.

14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 지원사업’ 공모 결과 7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행안부가 폐교 활용을 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에 총 12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100억원과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하고 사업

자문과 홍보 등도 병행한다.

이번 공모에는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마련한 폐교 활용계획 12건이 접수됐다. 양 부처는 공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필요성과 이행 가능성, 확장성 등을 평가해 7건을 최종 선정했다. 교육청이 소유한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이 5건, 지방정부 소유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이 2건이다.

경북 영천에서는 폐교한 화산중학교가 ‘영천 온지람 교육센터’로 바뀐다. 전남 여수의 나진초등학교 분교는 어린이와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전남 나주의 폐교 문평남초등학교에는 교육과 휴식을 결합한 ‘나주 온(溫)공간’이 들어선다.

충남 예산에서는 대륜초등학교와 장신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 ‘폐교-AI로 다시 여는 충남 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경

기과주 신산초등학교 분교는 생태체험과 문화·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도 2건 선정됐다. 전남 영암에서는 칠성초등학교 폐교에 지역 특산자원인 황토를 활용한 체험시설을 조성한다. 충북 괴산 도포초등학교 분교에는 ‘창의 캠퍼스 체험동’이 들어선다. AI·디지털 기반 교육시설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폐교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역의 교육과 정주 여건을 높이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폐교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6개국 마이스 바이어 송도로… 유치 총력

인천시 ‘마이스트래블마트’ 개최
마이스 인프라·관광콘텐츠 알러

인천시가 9월 14~17일 송도에서 ‘제3회 마이스트래블마트’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트래블마트에는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6개국의 해외 마이스 바이어 30개 사와 국내 마이스 기업 52개사가 참여하며 이번 트래블마트의 중심이 되는 1:1 비즈니스 상담하는 오는 1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맞춤형 사전매칭을 방식을 도입해 총 320건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송도의 우수한 마이스 인프라 및 복합지구 내 관심 시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체험하는 투어와 강화도 팸투어 등에 참여해 인천의 뛰어난 개최 여건을 확



인하게 된다.

김영신 시 국제협력국장은 “마이스 산업은 국내외 기업과 인재를 인천으로 연결하고 관광, 숙박, 소비 등 지역경제 전반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이번 트래블마트를 통해 송도를 비롯한 인천의 우수한 마이스 인프라와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확실히 알리고, 가시적인 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서울 3세 유아 교육비 최대 11만원 지원

서울교육청, 내달부터 한시적 지원
4·5세와 시차 해소… 무상교육 앞당겨
사립유치원 11만원·어린이집 7만원 등

서울시교육청이 사각지대에 있던 3세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받아온 4~5세와의 격차를 메우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유아

에게 무상교육비·보육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누리과정을 다니면서도 4~5세보다 늦게 지원받게 되는 시차를 줄여 전 연령 무상교육 실현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년 3월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계획’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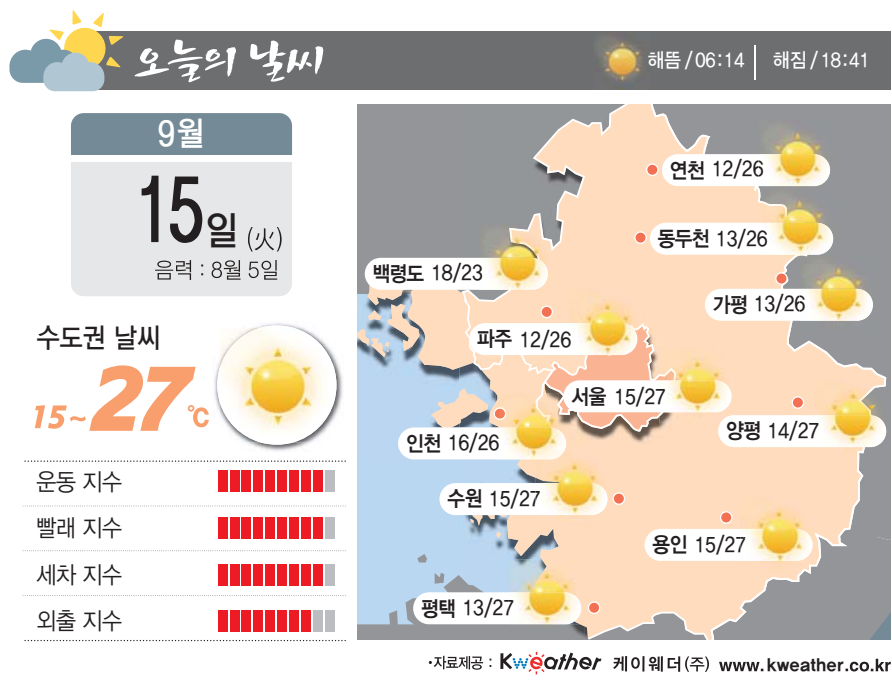
지원 대상은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유아 3만 4982명이

다. 구체적으로는 ▲공립유치원생 3619명 ▲사립유치원생 1만 2867명 ▲어린이집 원아 1만 8496명이다.

시설별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어린이집 월 7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비,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비, 어린이집의 기타필요경비 명목으로 쓰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원 확대를 계기로 유치원·어린이집이 오히려 학부모 부담금을 올리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일본 내년 과학기술 예산 사상 최대…전년비 73.7% ↑
▲시진핑, “브릭스 AI 오픈소스 지대 구축” 제안…인도엔 협력 강조
/사진 뉴시스

▲中베이징서 11월부터 드론 소유도 금지…처분 시 보조금
▲美의회, AI 위험성엔 공감…규제 주도권·개발 속도 놓고 여야 충돌

▲美 정보기관 10년 만에 최대 개편…AI·중국 전담 조직 신설
▲“사람 없는 배끼리 첫 전투”…우크라, 흑해서 러 무인정 파괴 발표



유통·식품기업
K-푸드
글로벌로 전파
니



Life

정몽구재단
세대 잇는
클래식 앙상블
L4



1. 삼육대 학생들이 캠퍼스 뒷밭(노작교육장)에서 '노작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 삼육대 캠퍼스 전경. 3. 지난 4월 삼육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연계 나눔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육대

땀 흘려 배운 생명과 나눔... 120년 텃밭서 '상생' 가꾸다

서울 노원구에 자리한 삼육대학교는 2022년 'ESG 경영'을 선포하고, 환경(E)·사회(S)·지배구조(G) 3대 전략 방향 및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대학의 ESG 실천을 상징하는 콘텐츠는 교양필수 과목 '노작교육'이다. 1906년 개교부터 이어온 텃밭 농사 수업인 노작교육에는 매년 신입생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삼육대는 노작교육의 효과를 실증 데이터로 검증한 데 이어,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이르기까지 ESG 경영을 대학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삼육대학교

◆120년 노작 효과, 데이터로 증명

노작교육은 지식 습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흙을 만지고 땀 흘려 노동하며 신체 건강과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함으로써 배운다'는 삼육대의 교육 철학에 따라, 1학년 신입생들은 한 학기 동안 매주 2시간씩 노작교육을 수강한다. 최근에는 기존 수업에 ESG 역량 프레임워크와 탄소중립, 생태순환 교육 요소를 접목하는 등 교과 내용도 다듬었다. 학생들은 씨 뿌리기부터 거름 주기, 수확까지 15주에 걸친 친환경 농업의 전 과정을 경험한다. 이론으로 배우고(배움) 직접 재배하고(실천) 그 결실을 지역사회에 나누는(나눔) 순환 구조를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노작의 교육적 가치도 실증 데이터로 입증했다. 14일 삼육대에 따르면, 유아교육과 신지연·이유진 교수와 교양교육원 이사무엘 강사로 구성된 연구팀은 '삼육대학교 교육이념 기반 ESG 노작교육 효과 검증: 생태감수성, ESG 인식 및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올해 1학기 노작교육 수강생 등 신입생 452명을 대상으로 혼합연구(양적연구와 질적연구 결합)를 진행했다. 그 결과, 노작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보다 ▲나눔실천역량 ▲생태감수성 ▲소통역량 ▲시민의식 등 9개 평가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심층 인터뷰, 성찰 일지 등 질적 연구에서도 학

개교 120주년... '노작교육' 효과 실증 배우고 재배하고 나누는 순환구조 익혀 체험형 학습으로 대학 ESG 교육 실천 직접 가꾼 농작물, 지역 소외계층으로 나눔으로 생명의 가치·사회적 책임 배워

탄소중립 캠퍼스 'SU-RISE' 프로젝트 돌봄습·마을지도 제작 등 지역상생 확대 120주년 맞아 120만원 기부 릴레이 확산

생들은 조별 협업과 수확물 기부를 거치며 ESG 개념을 일상에서 체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대학 ESG 교육이 흔히 마주하는 '인식과 실천의 간극'을 텃밭 기반 학습이라는 체험적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120년간 이어온 전인교육 전통과 '배움-실천-나눔'의 순환 구조가 생태적 책임과 공동체적 실천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유효한 교육 모델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나눔으로 완성되는 노작교육

노작교육의 결실은 학교 밖에서도 빛을 발한다. 삼육대는 지난 4월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포천시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산하 3개 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연계 나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학생들이 캠퍼스 텃밭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제공하면 각 복지기관은 이를 지역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식탁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난 7월에는 교내 노작교육장에서 지역 주민

50여 명을 초청한 '제1회 이웃사촌 유기농 페스티벌'도 열었다. 참여자들은 학생들이 가꾼 고추와 가지 등 친환경 농산물을 체험장에서 직접 수확했다. 삼육대는 노작 수확물의 활용 범위를 지역사회 나눔으로 넓힌 뒤, 이를 다시 주민 참여형 행사로 키우고 있다. 김명희 삼육대 교양교육원장은 "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배우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퍼스 넘어 지역으로

삼육대의 환경·나눔의 가치는 대학 ESG 활동 전반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SU-RIS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는 캠퍼스 지하에 복합단지 지하 공간을 확장하고, 지상은 자동차 없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탄소중립 선도 캠퍼스'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난 8월 제해중 삼육대 총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삼육대가 지나온 세기를 매듭짓고 다음 100년을 여는 대규모 캠퍼스 마스터플랜"이라고 설명했다. 삼육대는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지역이라는 3중 규제와 용적률·고도 제한 등 물리적 한계 속에서 지하 공간 개발을 대안으로 택했다. 오는 10월 개교 12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에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 공헌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직접 기획·개발하는 '삼육마을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학생들이 개발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 'SU-돌봄습'에 입점해 지역 수혜자와 매칭되며 창업 컨설팅과 연계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나아가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마을 지도 제작과 주민 생애사 기록을 결합한 '마을 in(인) 마을 프로젝트'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나눔과 투명 경영으로 ESG 완성

나눔 문화는 학교 구성원 안에서 확산하고 있다. 삼육대는 2024년부터 개교 120주년을 맞아 '감동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고액 기부자뿐 아니라 소액을 보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특징이다. 아트앤디자인학과에서는 1학년부터 갓 졸업한 동문 학생 100명이 1만 2000원씩 보태 120만원을 만들어 학과 단위 기부 릴레이의 첫발을 뗐다. 지난 6월에는 대학원 보건관리학과 교수진 전원이 뜻을 모아 각각 12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삼육대는 'ESG경영전략보고서'를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하고,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ESG 아이디어 공모전도 운영해 왔다. 예산집행과 규정 준수를 상시 감독하는 내부감사 제도를 갖추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대학평의위원회 운영,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통해 의사결정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도 제고화했다.

이런 노력은 외부 평가로도 이어졌다. 삼육대는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2024년 A등급에 이어 지난해 전국 138개 대학 가운데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삼육대는 캠퍼스 인프라 혁신부터 학생 주도의 돌봄 서비스, 학내 기부 릴레이로 이어지는 ESG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다음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김수정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임시' 모레노호 1기 발표...손흥민·이강인에 정승원·김민수 깜짝 발탁
▲모레노 감독 "4-4-2 활용 예정...최근 K리그 분석한 결과" /사진 뉴시스

▲키움 투수 박윤성·손현기·내야수 이재상 현역 입대
▲프로농구, 오는 29일 새 시즌 개막 미디어데이 개최

▲여자 농구, 나고야 아시안게임 명단 확정...'부상' 박지수 제외
▲이정후, 5타수 무안타 침묵...송성문은 대수비 출전